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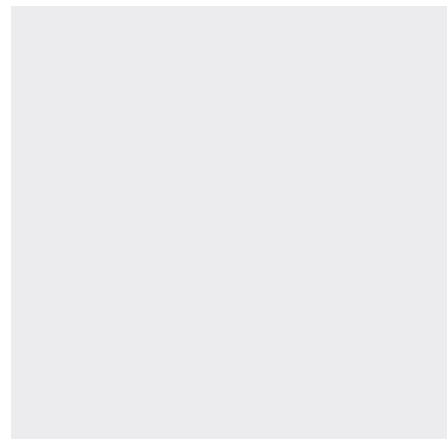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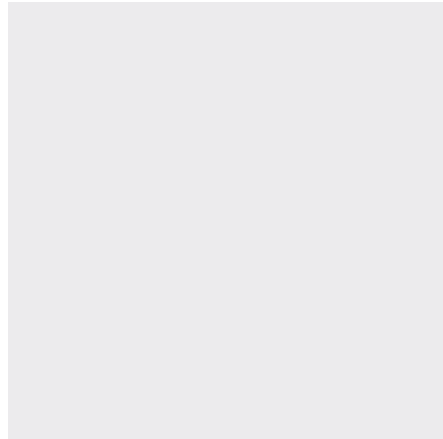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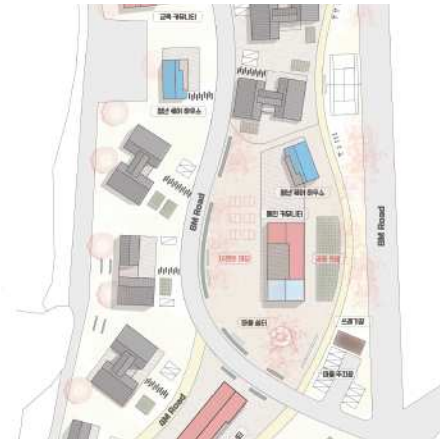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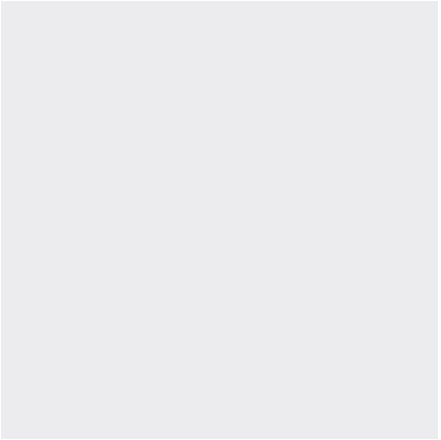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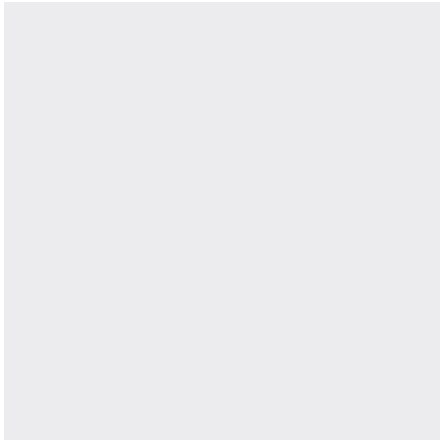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999-14

2019 제14회 한국농촌 건축대전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수상 작품집]
청년 농촌보급자리 주거단지 조성

2019 제14회
한국농촌 건축대전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KFS
한국농어촌공사
KIAA
한국농촌건축학회

비매점/무료
93530
9 791186 183298
ISBN 979-11-86183-29-8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건축학회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주제

-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

전시

-

9월 24일(화) ~ 30일(월)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

시상

-

9월 24일(화)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

CONTENTS

개요

-

소개	4
공모요강	8
심사평	18

수상작

-

대상	28
우수상	30
장려상	34
입선	42

진행과정

-

갤러리	72
포스터 및 리플렛	76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 및 인프라 환경에서 귀농 귀촌을 하고 싶으나 주거공간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40세 미만 청년 귀농 귀촌인들에게 제공하여 농촌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촌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안정적,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보급 자리 주거단지 조성을 주제로 학생 및 일반인의 공간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그간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건축적인 아이디어로 풀어가기 위한 시도를 해온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해 농촌과 농촌건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최·주관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촌건축학회

운영위원

—

운영위원장 : 이 동 희 | 순천대학교

운 영 위 원 : 김 두 한 | 농림축산식품부

김 미 옥 | 한국농어촌공사

노 준 석 | 원광대학교

도 현 학 | 영남대학교

서 재 형 | 선건축사사무소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공모 세부사항

공모요강

공모주제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

목적

- 가. 농촌지역(읍면)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나. 한국농촌건축대전 추진을 통하여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공모 내용

- 주제 :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
- 공모대상지 :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신청지구

대상지

-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 서천군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 고흥군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심사

- 심사위원장
조 용 준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장
- 심 사 위 원
김 철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고 영 학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단장
유 창 균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고호에밀리앙 |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구 국 현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마루 대표 건축사
조 준 호 | 디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공모자격

건축, 농촌계획, 환경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구성 ※개인 또는 팀당 1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 지정해야 함

공모일정

구분	일정	주요사항
참가신청 접수	6월 3일(월) ~ 6월 28일(금)	홈페이지 접수
1차 작품 접수	7월 8일(월) ~ 7월 10일(수)	참가 신청자(팀)
1차 심사	7월 12일(금)	
2차 작품 접수	8월 12일(월) ~ 8월 16일(금) 15:00까지	1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 (공휴일 제외)
2차 심사	8월 22일(목)	
3차 작품 접수	8월 29일(목)	2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
3차 심사	8월 29일(목)	
수상작 발표	9월 3일(화)	홈페이지 공지
전 시	9월 24일(화) ~ 9월 30일(월)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
시 상	9월24일(화), 15:00~17:00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상장	상금
대상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만원
우수상	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원
장려상	4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원
입선	다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기념품 증정

공모대상지 정보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대상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566번지 일원

해당지번: 읍내리 202, 566 일원

총 부지면적: 15,900m²(100% 토지확보 15,900m²)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괴산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 유치

- 과산점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조기정착
- 근로자의 청안면 거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2) [청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청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생활 SOC 확충에 따른 정주여건 향상

3) [지방소멸위험지역] 과산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괴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19로 소멸위험지구로 분류
- 충청북도 도내에서 가장 낮으며, 충북 전체 지수 값(0.731)의 약 3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괴산군이 지방소멸지역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인구유인 정책이 필요
- 괴산군은 낙후지역·성장축진지역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지원 절실

인구현황

인구 수(명)	65세 이상 인구수(고령화)			
	계	남	여	비율
3,540	1,004	416	588	34.4%

위치도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대상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410
 해당지번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410, 410-6, 410-7, 410-8
 총 부지면적 : 10,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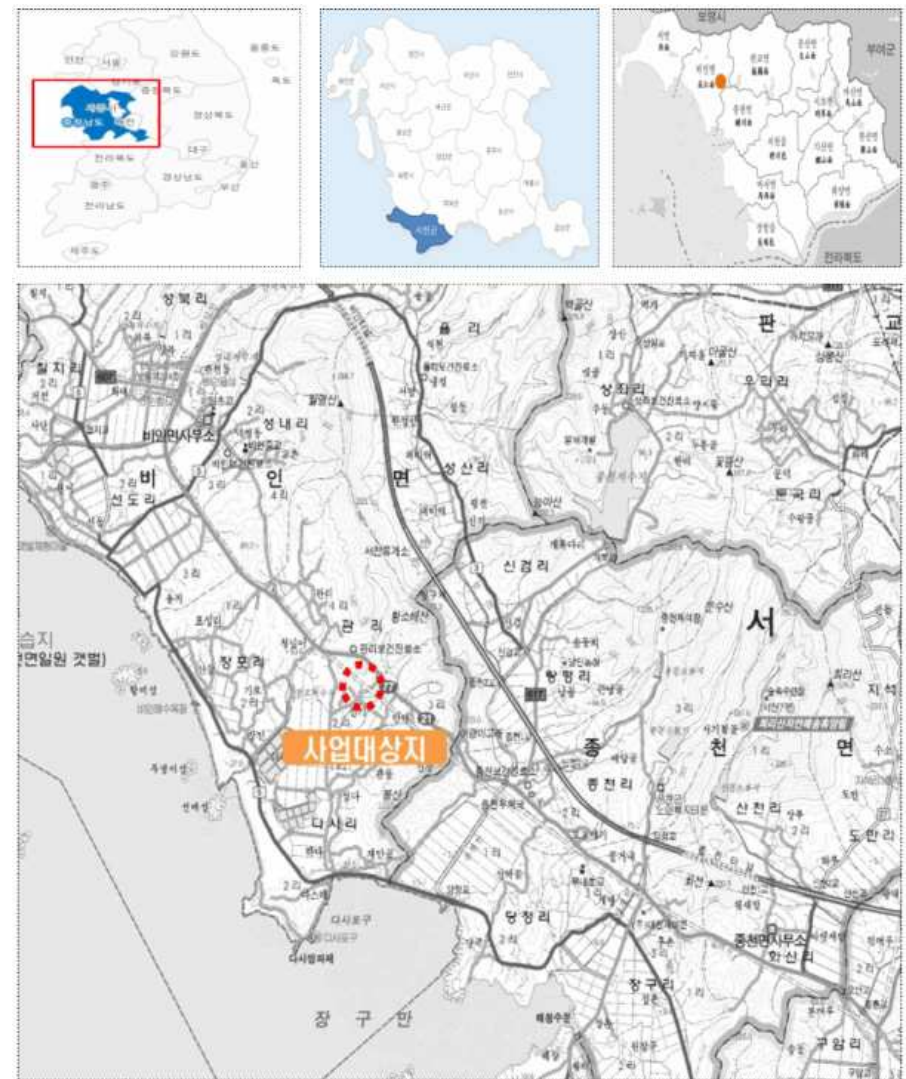
추진배경 및 목적

- 충남 고령화를 1순위 지역,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서천군**
 - 서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지역은 활력을 잃어버리며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문제 발생함
 - 군 전체적으로 극심한 공동화가 되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악순환을 통하여 더욱 인구감소를 가속화
 - 서천군 전체 316개 행정리 중 과소·고령마을(65세 고령화 인구비율 50% 이상)이 32개에 달하며, 이 중 인구공동화와 토지경제기반 및 커뮤니티 공동화가 극심한 8개 마을이 이미 한계마을에 도달
 - 또한, 서천군의 고령화율은 33.47%로 충남 내 1순위임
 - 노인 인구 증가 대응, 서천의 미래를 위한 청년 인구 유입 가능한 계획 절실
- 자연, 역사, 관광, 먹거리 등 자원 풍부. 그러나 인근 지역으로 인구 유출 우려**
 - 서해, 금강 등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자원 발굴 활발함
 - 국립생태원, 근대 건축물(미곡창고)을 활용한 장항문화예술창작공간, 서천특화시장, 국가생태산단 등으로 정부 여건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동백대교 개통으로 군산 접근성이 강화되어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 현실임
- 농촌 공동화에 대응, 청년층만을 위한 정주모델 발굴 절실**
 - 서천군은 판교 등고리 전원마을 만들기,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2018년 농촌형 공공 임대주택 조성 시범사업 등 정주모델 발굴 및 운영 노하우 보유
 - 지역의 청년 및 귀농인 증대를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비싼 집과 토지 가격 및 부족한 주택공급 등으로 서천군의 주거여건은 상당히 열악하여 그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동화 현상의 또 하나의 원인인 지역의 부족한 육아문화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SOC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문제 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문화커뮤니티 등을 연계하는 지역 거점의 조성 또한 매우 절실한 상태
 - 청년 정착과 귀농인 유입을 유도, 근본적으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인구증대와 함께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함

인구현황

인구수	비인면	총 3,130명	관리	총 196명
가구수	비인면	총 1,618호	관리	총 82호

위치도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대상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3-10
 해당지번 : 경북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3-10 외 18필지
 총 부지면적 : 12,808㎡

추진배경

1)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 상주시 인구는 현재 100,037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0.6% 감소세이며, 출산률은 2.1% 감소세를 보임
-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청년층인 20~30대는 3.0%, 10대이하의 아동·청소년층은 3.2%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1.7%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29%로 초고령사회임

2) 청년 인력의 영농분야 진출 유도를 위한 투자·보육 중심의 마중물 필요

- 전체 청년 취업자 중 영농분야 진출 비율은 1.1%에 불과하며, 주요 장애 요인1)으로 일자리 정보 부족(22.1%), 지식과 기술 부족(13.7%), 현장경험 부족(10.2%) 및 근무조건 열악(8.6%) 등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에 대한 청년들의 진입장벽인 주거부담, 소득부담, 육아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

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필요

- 청년층의 농촌 유입-성장-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입장벽인 주거부담, 정보부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주여건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의 조성이 필요함

추진목적

1)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One-stop' 지원

- 경상북도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보육체계와 자체 청년농 육성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매년 스마트팜 관련 전문인력 50명을 배출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며, 문화거리 조성과 주거시설 공급으로 청년 유입-성장-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계획함

2) 복지·문화 관련 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

- 문화·여가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시설을 주거단지와 함께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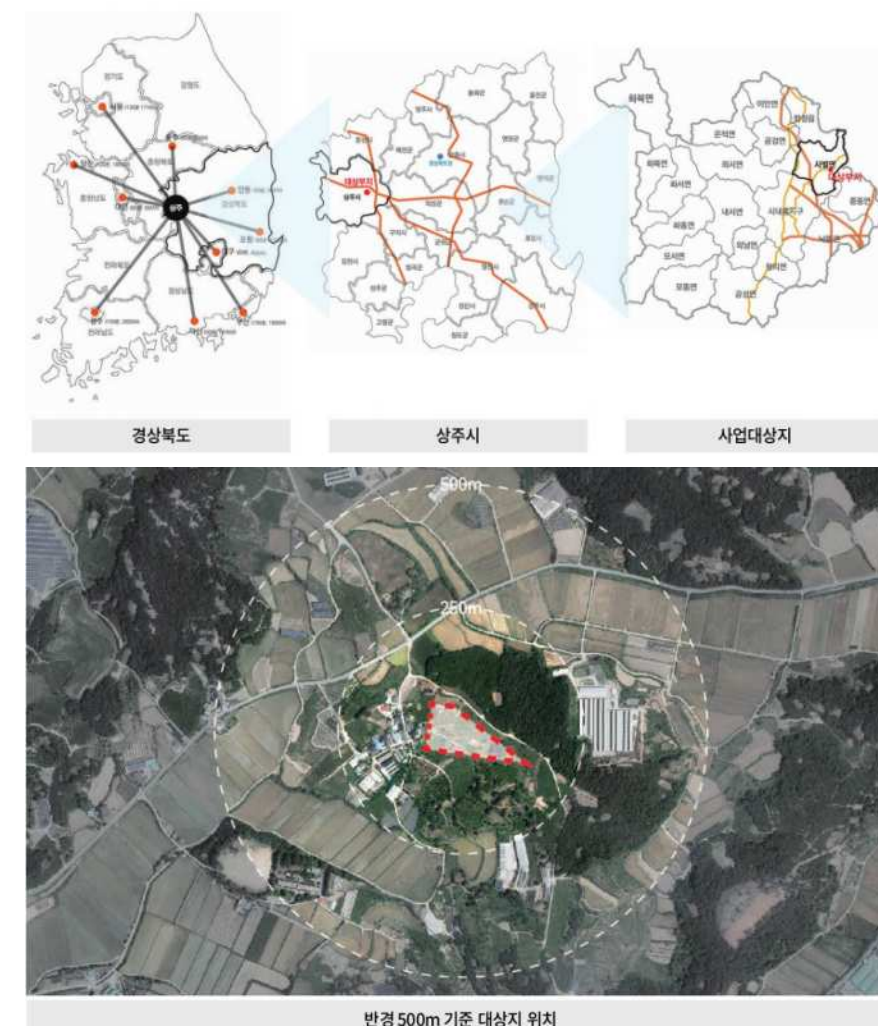
3) 농촌 공동체 융합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한 청년과 주변 원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갖춘 청년들을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

인구현황 (상주시)

합계	전체인구		65세이상 인구	세대수
	남자	여자		
100,037	48,928	51,109	29,115	47,048

위치도



총 부지면적 : 9,933m²

고흥은 최근 고려화, 소멸화의 대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우수한 청정자연에서 수확되는 고흥 대표 농수산물인 8품9미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등록된 8건의 지리적 표시와 고흥 웰빙유자식류특구 지정 등 노력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 [illegible]

심사평

—

조 용 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 심사위원장)

지금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촌, 귀농 현상은 농촌이 내발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촌건축전의 주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으로 선택한 것은 시기 적절하다. 특히 정책대상지역인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를 대상 부지로 선택한 것도 실증적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심사는 1)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생산(직장) 활동과 생활 활동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생산 활동과 생활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도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겹치기도 한다. 주택안에서 보다는 밖에서 활동이 많다. 따라서 이들 활동특성의 반영여부. 다양한 외부공간과 건축물의 관계성, 쾌적한 보행루트와 보행성 확보 여부 2)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사람과 마을, 토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하여 이웃 사촌관계가 형성되고, 협력적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적 공간, 반공적 공간, 사적 공간이 조화롭게 형성되어야만, 필요활동은 물론, 사회활동, 임의활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의 반영 여부, 3)청년들의 창조적 생각이나 지식습득을 지원하는 첨단마을의 분위기 형성은 물론, 도시와 관계성을 갖는 환경조성 여부. 4) 청년의 생활패턴이 존중되고, 혈연가족은 물론, 사회가족에 대응하는 주택의 다양성과 가변성 반영 여부. 5) 농촌의 매력인 전원성이나 자연성이 존중 여부, 특히 다양한 형태의 그라운드가 존중되고, 시설물 등이 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 아울러 단지 전체 이미지(경관)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출품 작품들은 농촌의 특성을 다양한 형태로 반영하려는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의 작품은 상대적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참여한 학생들이 농촌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다. 다만 다양한 외부공간을 만드는 주택 등 건축물 배치, 위계적 공간구성, 전체 이미지 (경관)형성, 도시와의 관계성에는 아쉬움이 있다.

유 창 균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농촌은 지속적인 상주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 하면 한편으로 도시생활에서 누릴 수 없는 삶의 여유와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농촌을 향해 정주공간
을 이동해 오는 고령은퇴자 위주 귀농귀촌 인구와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과 삶을 추구하는 청년농업 인구의 유입이라
는 호재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중에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층의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주제로 건축 · 농촌계획 · 환
경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019 한국농어촌건축대전」 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2019 농어촌건축대전은 단일 대상지를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일반 공모전과는 달리 충북 괴산군과 청남 서
천군, 경북 상주시, 전남 고흥군 4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전국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입주대상자의 사회적 속성(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신혼부부)과 단지와 주택규모(30가구 내외, 85㎡) 그리고 주
거형태와 건축계획의 주안점을 특정하여 제시하므로서 보다 구체적이며 실현성이 담보된 공모작을 유도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여러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작품이 우리의 전통적 농촌마을 정주방식과 배치형태에
입각하여 마당과 골목 및 텃밭 개념을 보다 긍정적이고 기능적으로 살려내어 투영하려는 노력 등이 매우 돋보였으며,
신기술이 반영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계획을 가미하여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의 지속가능성을 배가시키려는
일부 작품에서의 흥미로운 개념이 인상적이기도 하였다. 반면 일부 작품의 경우 특정 개념과 요소에 치중하여 전체 공
간의 배치와 기능적 배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도 하였고, 마을단위 공동체적 생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서 청년
계층의 귀농생활 영위에 따라 충분히 예상되는 기본적인 수요자 요구와 프라이버시 공간 제공에 대한 계획 · 설계적
배려가 아쉽기도 하였다.

끝으로 공모대상지가 4곳으로 서로 다른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공모작품의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
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심사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2019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건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해준 출품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수상자에게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마음을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조 준 호 (디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도시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촌인구의 감소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지속적인 현상으로 점점 더 뚜렷하게 양극화 되어가
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도시의 인구밀도증가 및 주거환경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농촌은 그 현상
이 인구감소, 특히 청년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2019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농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농촌이라는 특수성
과 청년이라는 연령대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농촌마을의 계획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개별성의 존중과 구성
원간의 소통의 방식에 있으며, 농촌이라는 조건 내에서 청년들의 특징인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소통의 방
식을 제안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각 주거의 개별성은 도시의 그것과는 달라야 하며 특히 대지 및 외부
공간과의 관계맺음이 중요하다. 내부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부공간은 단지 건물의 여백이 아닌 내부 공간 또
는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전이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소통의 방식은 주된 청년층 이외에도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소통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유도
가 마을에 생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도로가 단순한 통과수단이 아닌 기존 마을을 연결하고, 공
유시설 및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중심허브가 되어야 하며 각 주거영역까지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또한 주거단지의 특징이 내부적으로 완결된 형태가 아닌 외부와의 연계방안 혹은 외부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고립된 새로운 형태의 마을이 아닌 기존 마을 및 환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외곽의
전원주택단지와 차별화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주방식이 반영되면서 청년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새로
운 형식의 하이브리드 거주공간을 학생들의 생각으로부터 찾아보게 되었다.

대상을 받은 "가야에 가야하는 곳"은 배치계획에서부터 주변현황을 분석하여 도로 및 진입동선을 계획하고 주거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외부녹지공간 및 개인 텃밭 등의 공간조닝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였고,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기
존 마을과의 연계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가야(가지잇기)'라는 개념을 통하여 각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소통
과 공유의 요소를 적용하여 전체주거단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서, 길의 연결방식에서부터 커뮤니티 프로그
램, 주거공간의 개념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흥미롭다. 전체 배치계획에서 주도로 선형의 처리
나 주거사이공간의 관계설정이 조금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

고호 에밀리아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he amount of work, quality of design and representation was overall impressive, as well as the communication skills of many contestant. Ideas were diverse and creative.

작업 양, 디자인 질과 표현 수준은 전반적으로 인상적이었다. 발표자들의 소통능력도 우수하였다. 아이디어가 다양하고 창의적이었다.

I regret a lack of representation and/or connection to the surrounding context for many teams. Many schemes seemed inspired by western urbanism and architecture practice. I feel like drawing more from Korean tradition could help rooting such rural projects in their environment.

많은 작품에서 표현과 맥락 연결성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대부분 설계는 서양의 도시설계로부터 영감을 받아 보인다. 한국 농촌 상황은 한국 전통으로부터 영감 찾으면 더욱 잘 어울리는 프로젝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01.숨뜰마을에 스며들다

A creative community focused scheme with a convincing presentation. Be wary to leave some space for intimacy, or you might face the failure of utopian collectivist visions. An open space in the center might provide a better focus point. ??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춘 창의적인 설계다. 발표도 설득적이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도 남겨두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토피아 집단주의 비전처럼 실패 가능성이 높다. 중심에는 열린 공간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더 나을 수 있다.

02.다락

A pragmatic master plan with a nice architectural design. Semi collective space on rural second floor seems unconvincing.

배치가 실용적이면서 건물 디자인 깔끔하다. 이런 농촌이란 상황에서 2층 다락에 반 공공공간은 설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03.가야에 가야하는 곳

Good context analysis and interesting reference to traditional village structure. The main access road seems oversized and clumsily designed.

상황분석이 좋고 전통 마을 구조를 참고한 것이 흥미롭다. 접근도로가 너무 넓어 보이고 형태도 어색하다. ..

04.선한마을의 선과선

The project is well balanced and nicely structured. The connection to both the existing village and river could be improved. The place of automobile could be thought more precisely.

이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잘 설계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마을과 강의 연결성을 강조 할 수 있다. 차량들의 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할 수 있다.

05.선비마을에 청춘을 채우다

The master plan is well structured - maybe a bit too systematic. The smooth road system feels very natural. The building design would gain by being more integrated/ delicate.

배치 구조가 좋으면서도 조금 획일적이게 보인다. 곡선 가로제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건물 디자인은 더 섬세하게 통합 할 수 있다.

06.동근, 두레마을

Very good integration of the topography, despite a lack of contour lines on the plan. A very well structured and achieved scheme, but that might feel a bit stiff and dense. Context is utterly lacking.

등고선이 표현되지 않은데 급한 지형을 잘 다루고 있다. 잘 완성된, 구조가 강한 설계이면서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든다. 맥락 표현과 인식이 부족 하다.

07.In Our Pocket

Very interesting scheme with a compact yet airy master plan and simple, seductive building design. The biggest flaw in my opinion lies in the awkward double access road on the East side.

콤팩트 하면서 여유로운 배치다. 건물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매력이 있다. 반복된 서쪽 접근도로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
구 국 현 (건축사사무소 이뜰리에 마루 대표 건축사)

우선 올해로 제 14회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을 추진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건축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번 건축대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은 한 가족 그리고 한 나라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한 가족, 나라의 근간이었던 농촌이 지금 현재 급속한 노령화와 탈 농촌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내외만이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한국농촌건축학회에서 200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농촌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진행하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14회 대상 수상 수상작인 '가야에 가야하는 곳'이란 작품에서부터 장려상 수상작인 'In Our Pocket'까지 총 7개의 작품들은 농촌.어촌.산촌의 지역으로 각각의 마을지형과 마을이 지니는 생활습관 및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의 여부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적용과 활용방안을 두루두루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농촌 주민들과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촌, 귀농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 적용한 부분들을 확인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넓게 본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즉 유니버설 디자인을 금번 작품들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농촌마을 만들기에 적용한 것을 보면서 미래의 한국 농촌의 밝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촌의 발전의 위하여 건축과 도시의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학생이 큰 관심으로 한국농촌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제14회 한국 농촌건축대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수상작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가야에 가야하는 곳
안진선

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선비마을에 청춘을 채우다
이지 김용현 정세윤

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숨들마을에 스며들다
임다빈 김유진 석찬영

장려상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In Our Pocket
조해인 이재원 조혜연

장려상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둥근, 두레밥상
유지운 신수민

장려상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다락
김성수 김흥기 이수민

장려상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선한마을의 선과 선
강지원 조영은 김희준

입선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귀인촌 노형우 신정섭 백재민

3Story 이나라 강지혜 맹승주

상상모임 김노을 김규리 조인제

노소동락,같이놀자 이채연 김희하 오다정

상부상조마을 박지혜 인진환 박주원

시골복적 ; 시골에 끌리다 박상현 고창진 김도현

공존과 소통, 그리고 나눔 박자수 노은영

취농취촌 최정훈 강동민

다이어그램 최재영 이근규 박지원

맞물림 임혜란 정민나 신주연

벗(友), 꽃길만 걸자 김은비 김혜진

우리가 Green 마을 강다운 김한나

Play:Ground 홍경석 박영주

조인어스 이종인 신소원

SUNKEN COLONY 김도영 최지현

BTB 김현우 박서원

노소동락한수배워요 김현주 연승현

나는 젊은 농촌에 산다 김영일 허영지

똑똑한선비마을 이승준 김벽연 조현우

상주봉당 마을 만들기 김민지 문보옥 김영준

소확,행 문소연 김재진 김소현

'틔새' 말고 '잘자내봄새' 최원재 전한얼 이일규

보,아,라 윤민상 성예지 이수민

귀농청년들의 작은 숲 문은주 진예빈

청정원 김도연 김민주 김용균

상주(住)사이 이남경 김정현 반준모

허물고흥하다 이선아 권오훈 이지원

읍내두리 윤기연 김예준

대상

가야에 가야하는 곳

안진선
조선대학교

가야에 가야(柯:가지 가 也:이을 야)하는 곳의 의미는 이 곳에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나뭇가지가 나무기둥에서 모두 파생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연결성을 높였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에는 귀농 귀촌인, 청년 단독 및 부부, 4인 가구 주거의 자녀들을 고려하여 옥상정원형 주거, 다락형 주거, 27구 공동 주거, 단독 가구 주거의 다양한 주거 타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농업 활동에 경험이 있는 가구에게 옥상정원형 주거를 제안하고, 단독 가구와 연결시켜 공유 창고를 만들어줌으로써 귀농 귀촌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활 패턴과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평면을 구성하고 27구가 있는 공동

주거의 뒤편에 다락을 형성함으로써 자유로운 소통을 유도하여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커뮤니티적 측면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하여 도서관, 플리마켓, 공동텃밭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으며, 체류형 농장, 현장교육실습실을 연결함으로써 좀 더 쉽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농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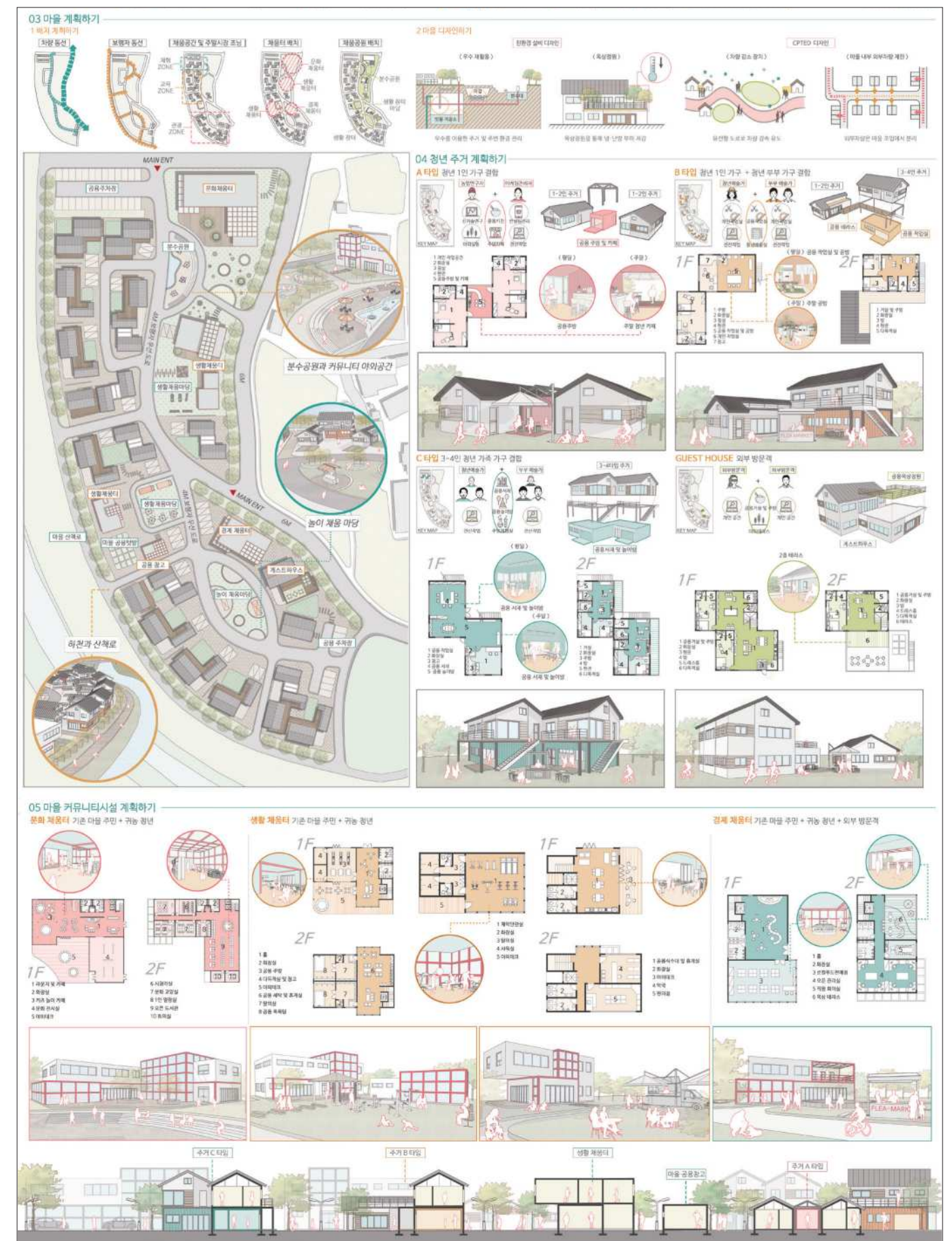


선비마을에 청춘을 채우다

이지 김용현 정세윤
한밭대학교

저희의 작품은 과산의 선비마을에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과산의 현재 현황과 농촌으로 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였고, 그 중에서 농촌 자체의 문화, 여가 및 교육 활동에 부족함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소의 부재가 기존의 거주민과 귀농, 귀촌의 새로운 주민간의 소통의 부재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농촌으로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에 지장이 생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비활동과 새로운 유입의 저조함을 타파하기 위해 저희는 농촌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움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와는 달리 농촌은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부족하다 생각을 하였고, 이는 도시인이 지속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촌에 변화하는 요소를 첨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변화를 통해 사람들을 유입하는 새로운 농촌을 목표로 잡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에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유입되는 귀농, 귀촌 청년들의 '채움 공간'과 '채움 시장'이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의 채움 공간은 각 타입별로 그 사람에 맞추어 끼워지는 알파의 공간입니다. 대상자에 따라 작업실이나 공방, 등으로 각 모듈이 정할 수 있으며, 평소 개인작업위주로 사용되는 주중과 달리 주말에는 공간을 열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인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 마을에서 다변적인 모습을 채워주며, 이는 주말의 '채움 시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알파공간의 열림과 주변의 플리마켓, 시장을 채우는 다양한 거리의 모습을 변화시킴으로써, 농촌의 소비활동 개선과 외부인의 유입 그리고, 마을 주민과 청년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개념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새로운 모습과 청년들의 유입으로 활력을 채우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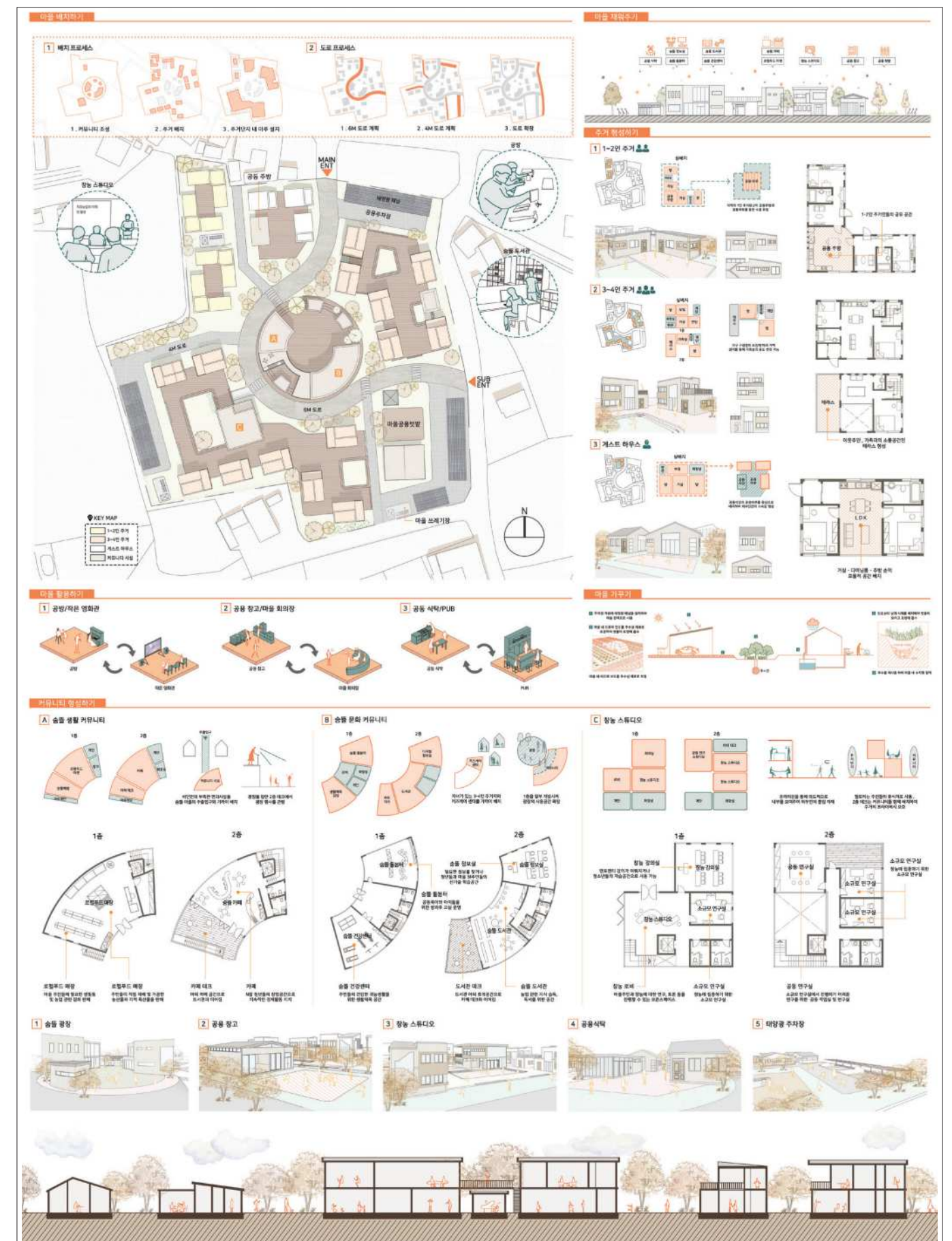
우수상

숨뜰마을에 스며들다

임다빈 김유진 석찬영
한밭대학교

‘숨뜰마을에 스며들다’는 비인면 주민들과 청년농부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입니다. 대상지를 기준으로 비인면의 기존 두 마을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두 마을의 중심에 있는 대상지에 마을의 부족한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기존 마을주민들과 청년농부들이 소통,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인면의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은 숨뜰마을 중심 광장에 계획하였고 중심 광장은 마을의 주출입구를 향해 열어두어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푸드 마켓, 카페, 도서관, 숨뜰정보실 등의 커뮤니티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가구 유닛으로는 게스트하우스, 1-2

인가구, 3-4인 가구가 있습니다. 청년농부들 간의 스며들음을 위해 유형별 가구 유닛을 배치한 후 마루를 통해 가구 유닛들은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넓은 마루는 아이들의 놀이터, 마을 행사 등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활기를 띤 숨뜰마을은 기존 비인면 마을에 스며들어 하나의 마을로 성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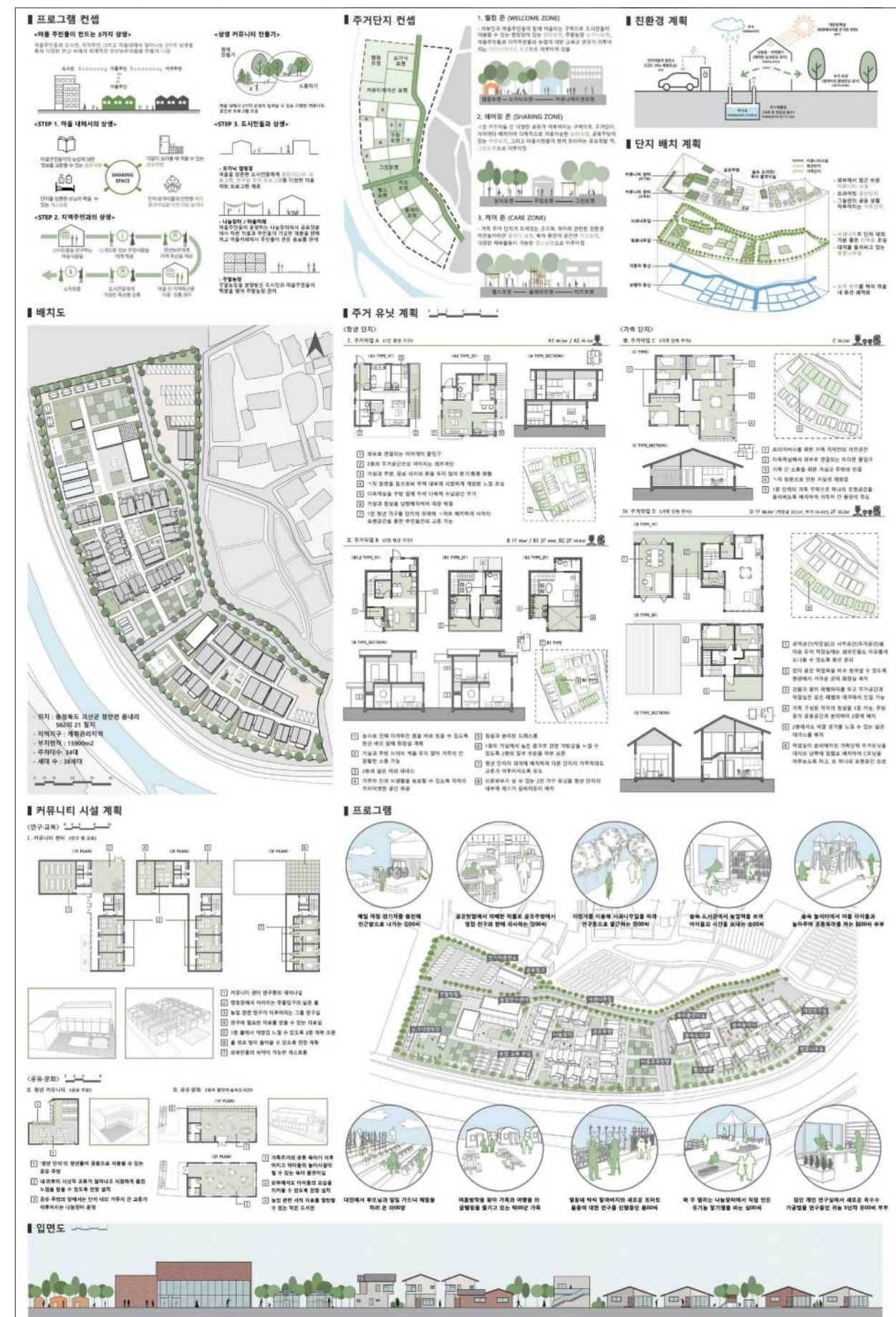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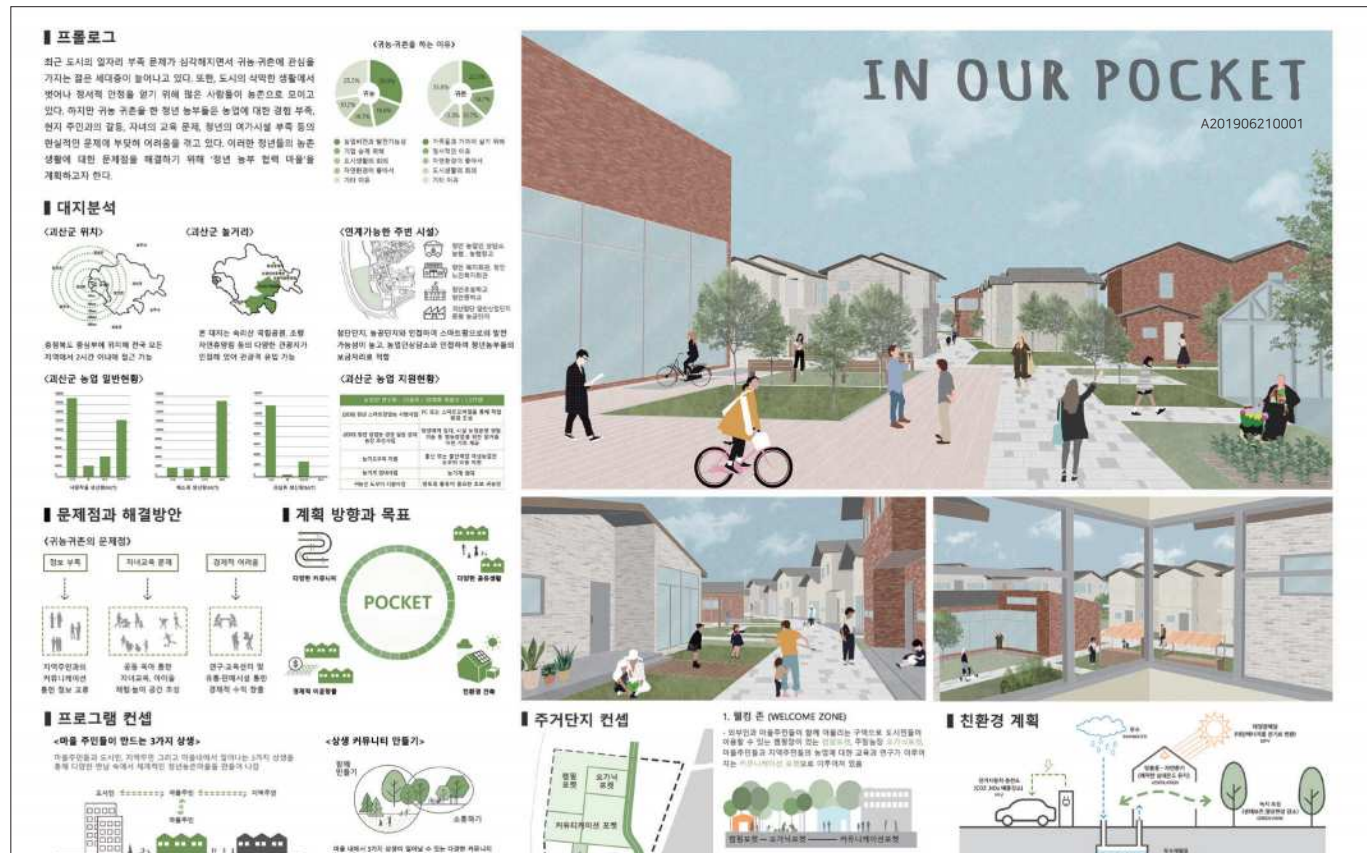
장려상

In our Pocket

조해인 이채원 조해연
충남대학교

저희 대지는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귀농 귀촌의 문제점에는 농업에 관한 정보 부족,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자녀교육 문제,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여유자금 부족같은 경제적 문제, 도시 친구들과의 헤어집으로 인한 외로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함께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상생커뮤니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의 상생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마을주민 간의 상생, 두번째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세번째는 도시민과의 상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가지 상생을 보행자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포켓 스페이스에 풀어냈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곳에 도시민,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이루어지는 웰컴 존을 조성하였습니다. 웰컴 존은 외부인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구역으로, 도시민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는 캠핑 포켓, 주말농장 오가닉 포켓, 마을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농업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에이션 포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번째 셰어링 존은 1,2인 청년 거주자들 간 다양한 공유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주거단지 사이마다 배치되어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알파포켓, 공유주방이 있는 쿡ingk포켓,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공유텃밭 즉, 그린포켓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세번째 케어존은 가족 주거 단지가 모여있는 곳으로, 육아와 관련된 친환경 자연놀이터인 플레이 포켓, 육아 품앗이 공간인 키즈포켓,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헬스포켓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장려상

동근, 두레밥상

유지운 신수민
영남대학교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는 귀농, 귀촌 인구가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귀농, 귀촌 인이 50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2만명 이상 새로운 평생직장을 찾아 옮겨 옵니다. 저희는 '모란 밥상을 볼 때 마다 어머니의 동근 밥상이 그림다'라는 '정일근' 의 동근 밥상 시를 통하여 도시의 모란 밥상을 잠시 잊고 농촌의 동근 밥상에 둘러앉아 나눔과 배움의 이상적인 세계가 도래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였습니다. 대지를 읽음으로써 지형 즉, 구릉지를 절-성토를 최소화 하고 경사지를 보완 하여 농촌의 특징을 살리며 계단식 마당을 공동체 공간으로 구성하여 경사를 최대한 이용한 공간에서 소통 하였습

니다. 또한 소식의 부재를 소식 공유를 시도하여 공동 공간이라는 흐름은 공간(소식의 발자취를 따라서 흐름)에서 시간을 채우는 두레 마을로 정보 습득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레 마당-마을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넘어, 개개인이 모여 공동체가 된다 라는 개념, 그 공간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협업 하여 일을 더해 더 큰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이 공모전을 통하여 두레 밥상이란 소재를 통하여 농촌의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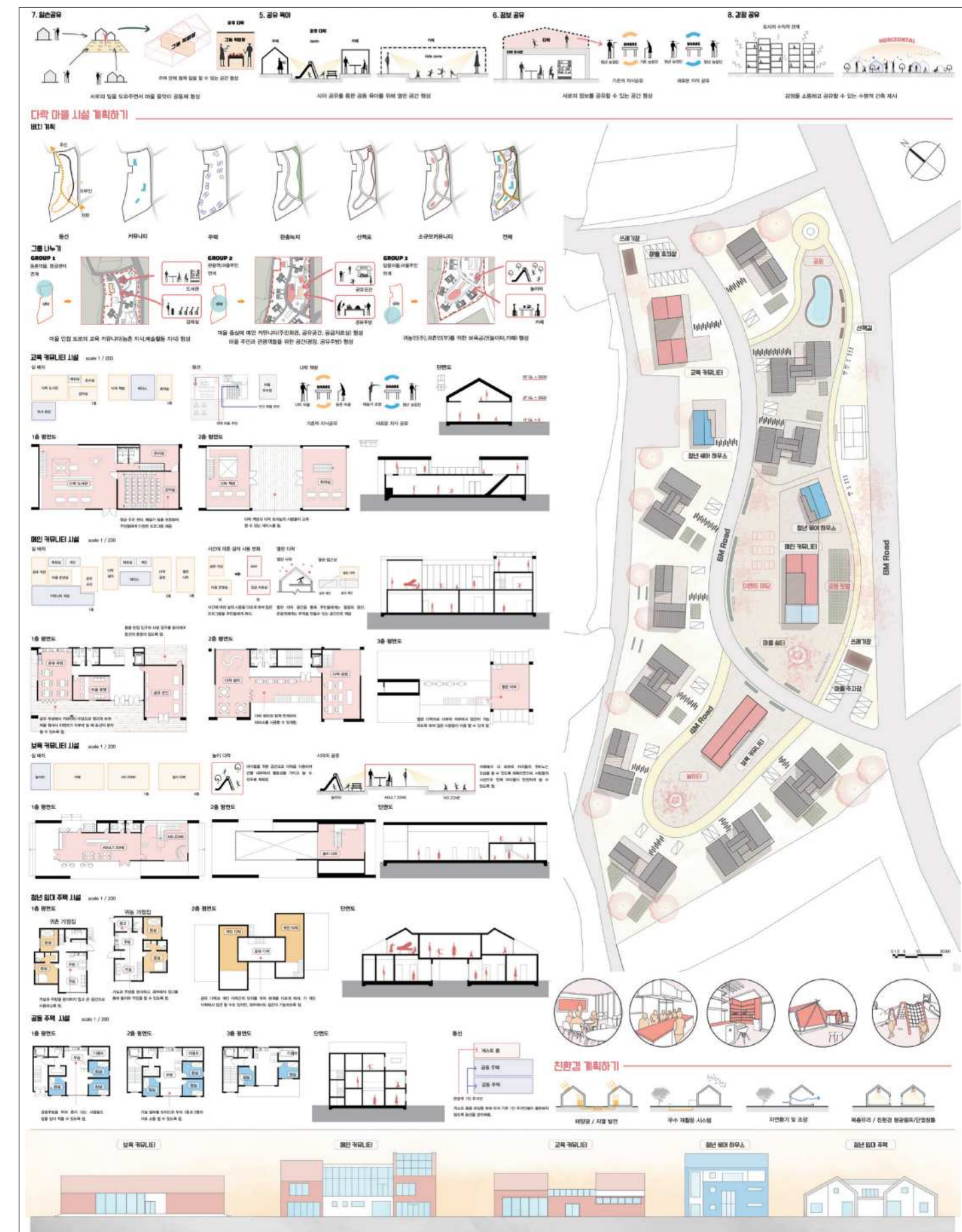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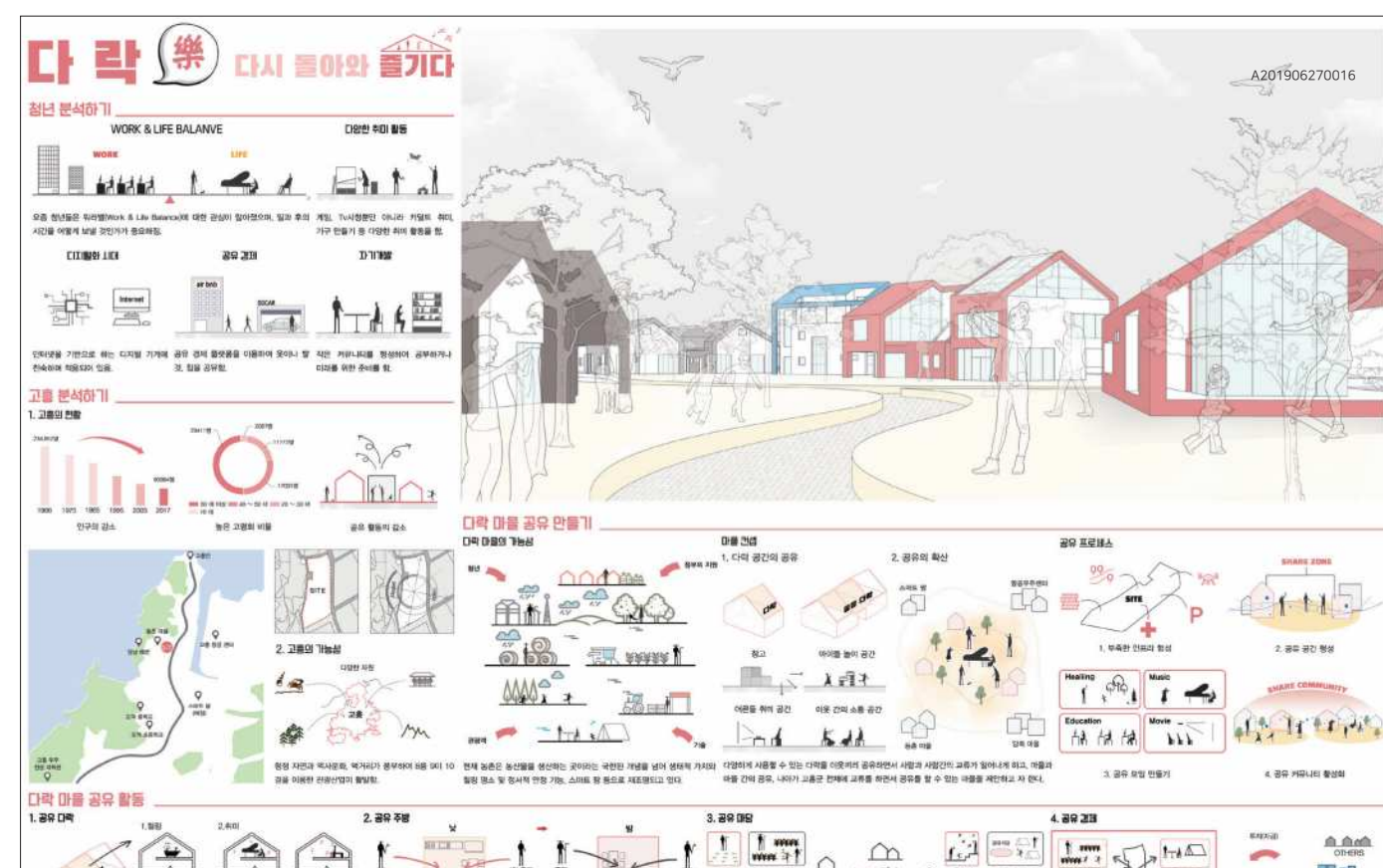
다락

김성수 김흥기 이수민
한경대학교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감소와 높은 고령화 비율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특히 농촌은 이촌향도의 현상으로 현재 농촌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은 현재 다양한 활동들, 항공우주박물관, 드론사업, 스마트팜 등으로 인해 많은 귀농, 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아 고령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일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게임 v 시청뿐 아니라 키덜트, 취미, 가구 만들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

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며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 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옷이나 탈것, 집을 공유하여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에 적합한 공간이 '다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공간에서 나아가 이웃과 공유한다면, 일상에서도 청년들이 원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유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공유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 공유 커뮤니티 활동이 마을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고령 전체로 퍼져 나가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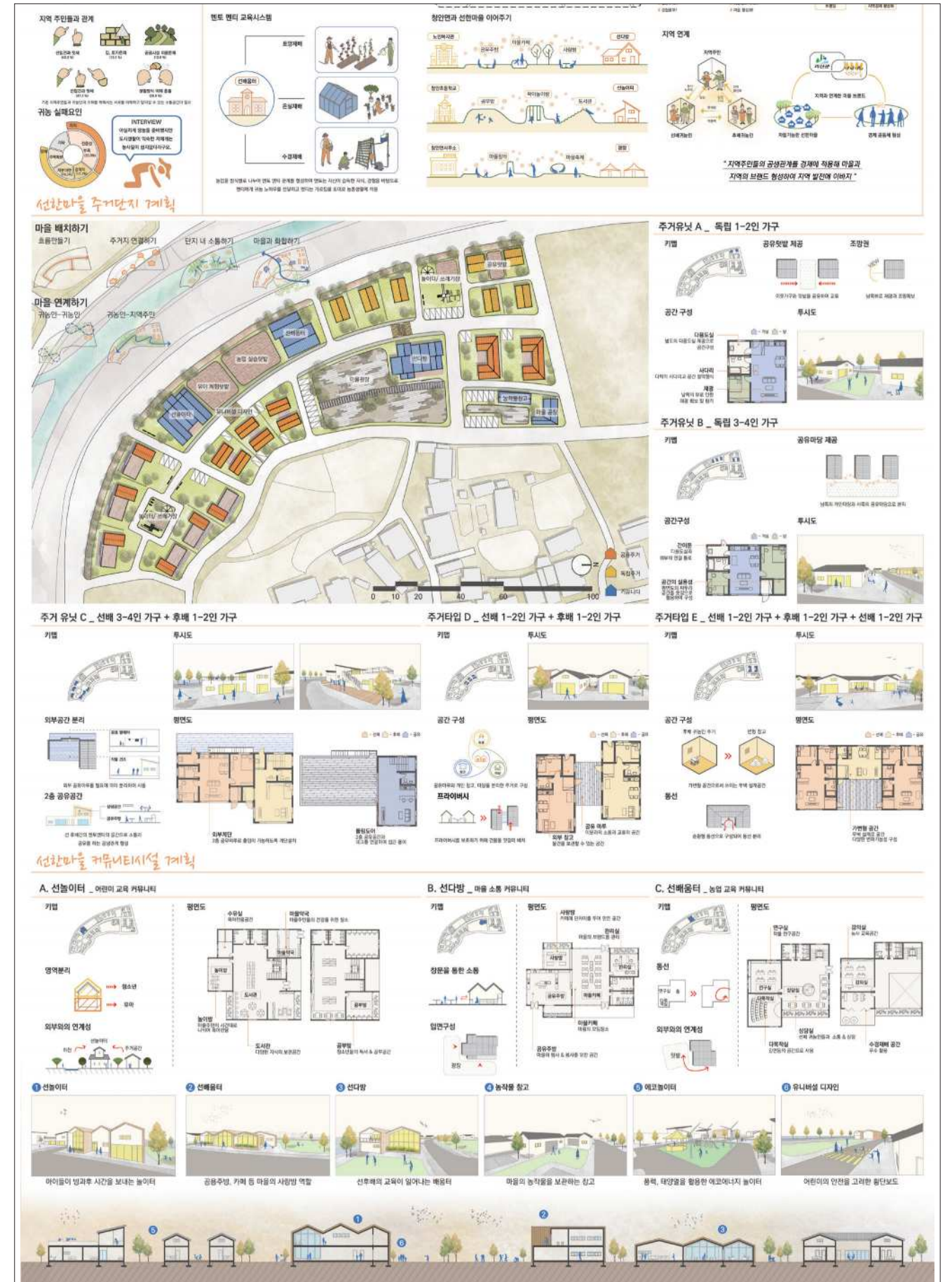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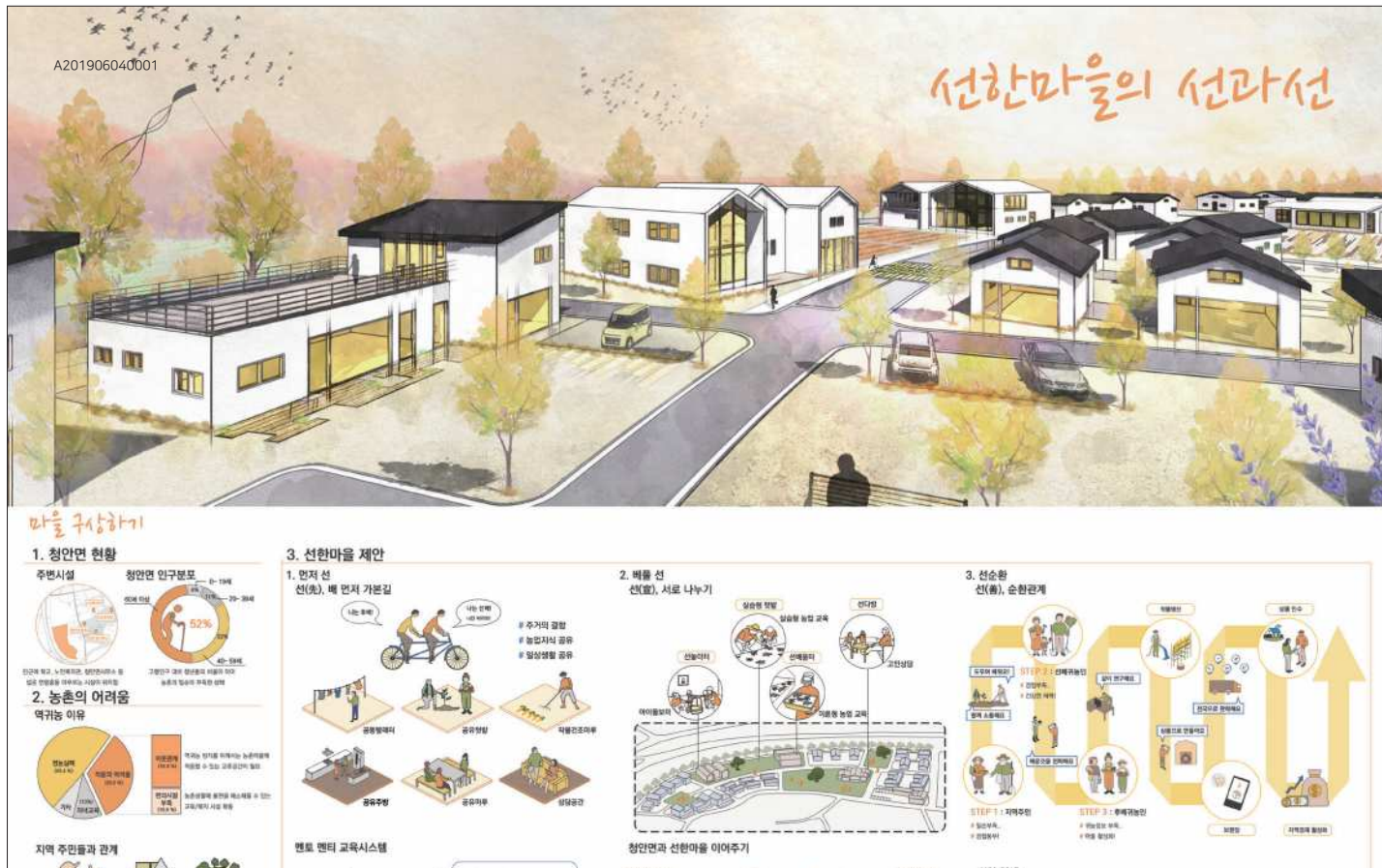


선한마을의 선과 선

강지원 조영은 김희준
한밭대학교

선한마을의 계획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566번지 일대입니다. 청안면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50%이상인 반면, 청년층의 비율이 적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저하는 청년층의 귀농을 장려하는 목표가 생겼고, 선한 마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귀농인은 선배와 후배로 분류해 이들의 교류공간을 중요시하며 후배귀농인이 농촌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먼저 마을의 배치계획은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단지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분포하고 사이사이에 커뮤니티 시설을 첨가했습니다. 외부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은 귀농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퍼블릭존과 귀농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미 퍼블릭 존을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선배와 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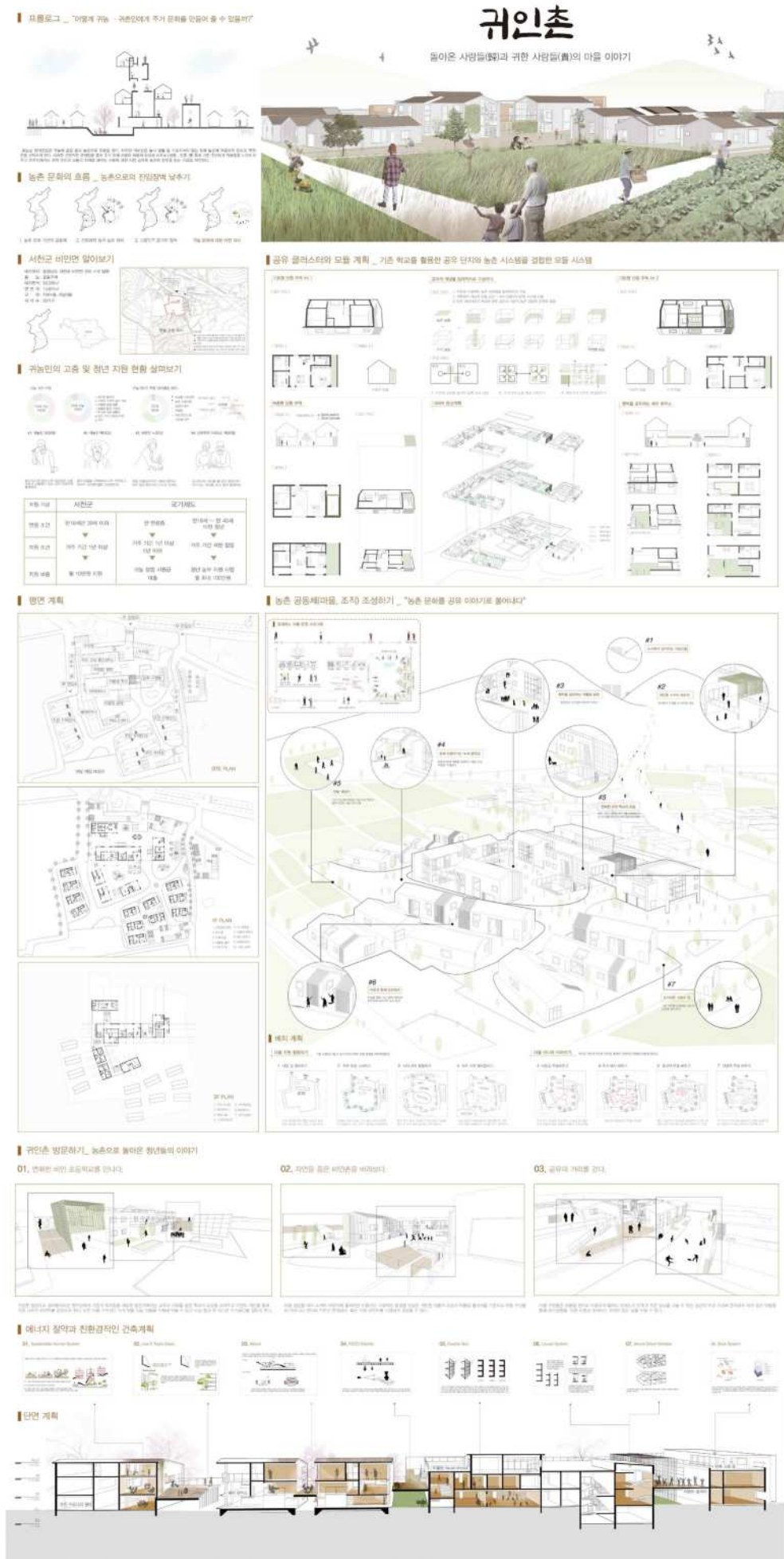
는 주거지 결합을 통해 교류공간을 확보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지만, 분리된 현관과 동선과 적절히 배치된 공유공간을 통해 프라이버시는 확보하되, 소통공간은 확보하는 형식입니다. 소통공간으로는 빨래터, 텃밭, 작물 건조 마루, 공유주방, 공유 마루, 상담공간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횟수를 늘려 교류를 증대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마을 아이들이 사용하는 선놀이터, 귀농인들이 농업을 공부하는 선배오투터, 마을 회관 역할을 하는 선다방이 있습니다. 저하는 이곳에서 마을브랜드 런칭, 농업교육, 공동육아 등 마을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민 간 교류기회 증진을 제안하여 문화, 복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입선

귀인촌

노형우 신정섭 백재민
삼육대학교



입선

3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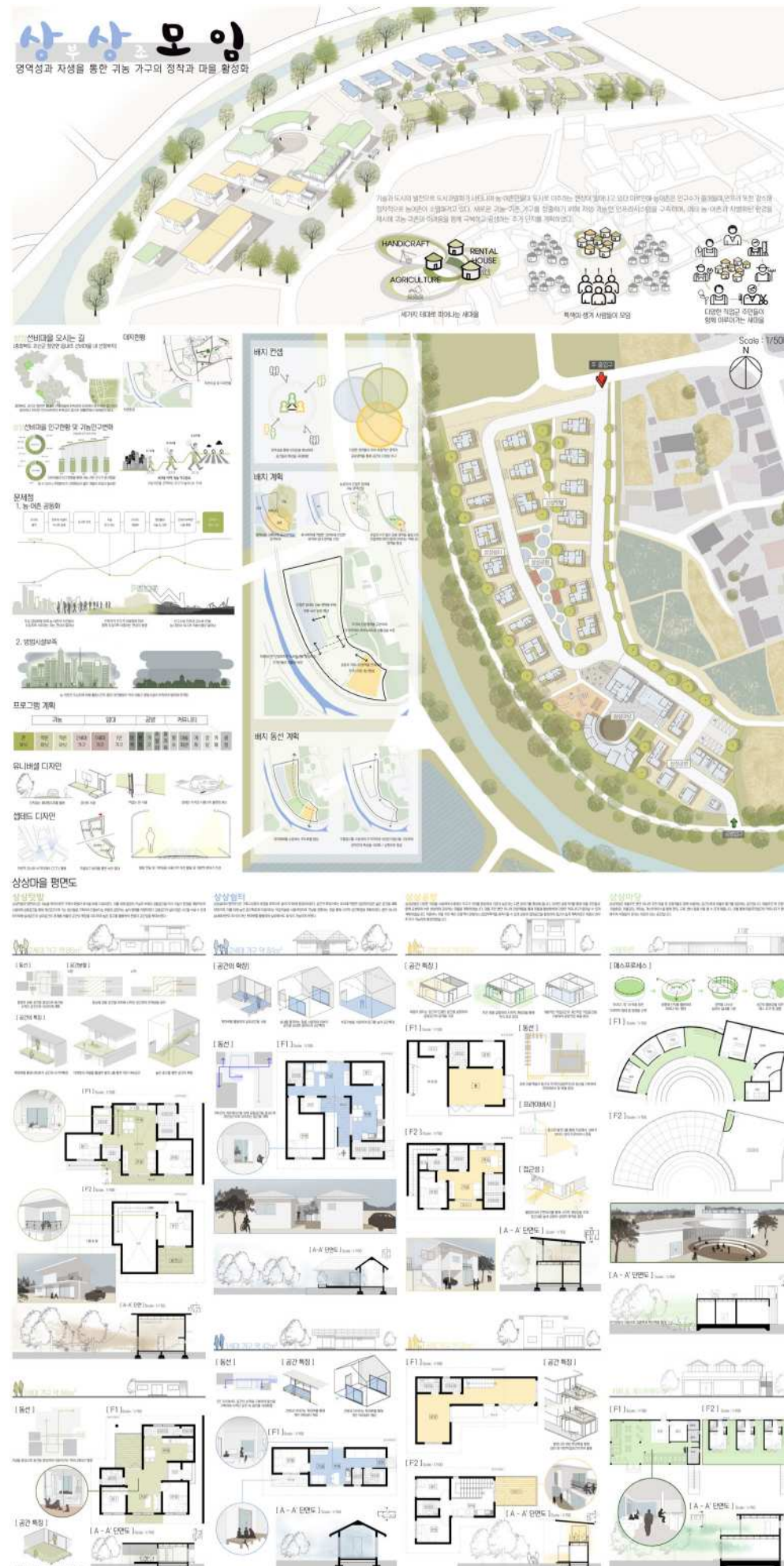
이나라 강지혜 맹승주
선문대학교



입선

상상모임

김노을 김규리 조인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입선

노소동락, 같이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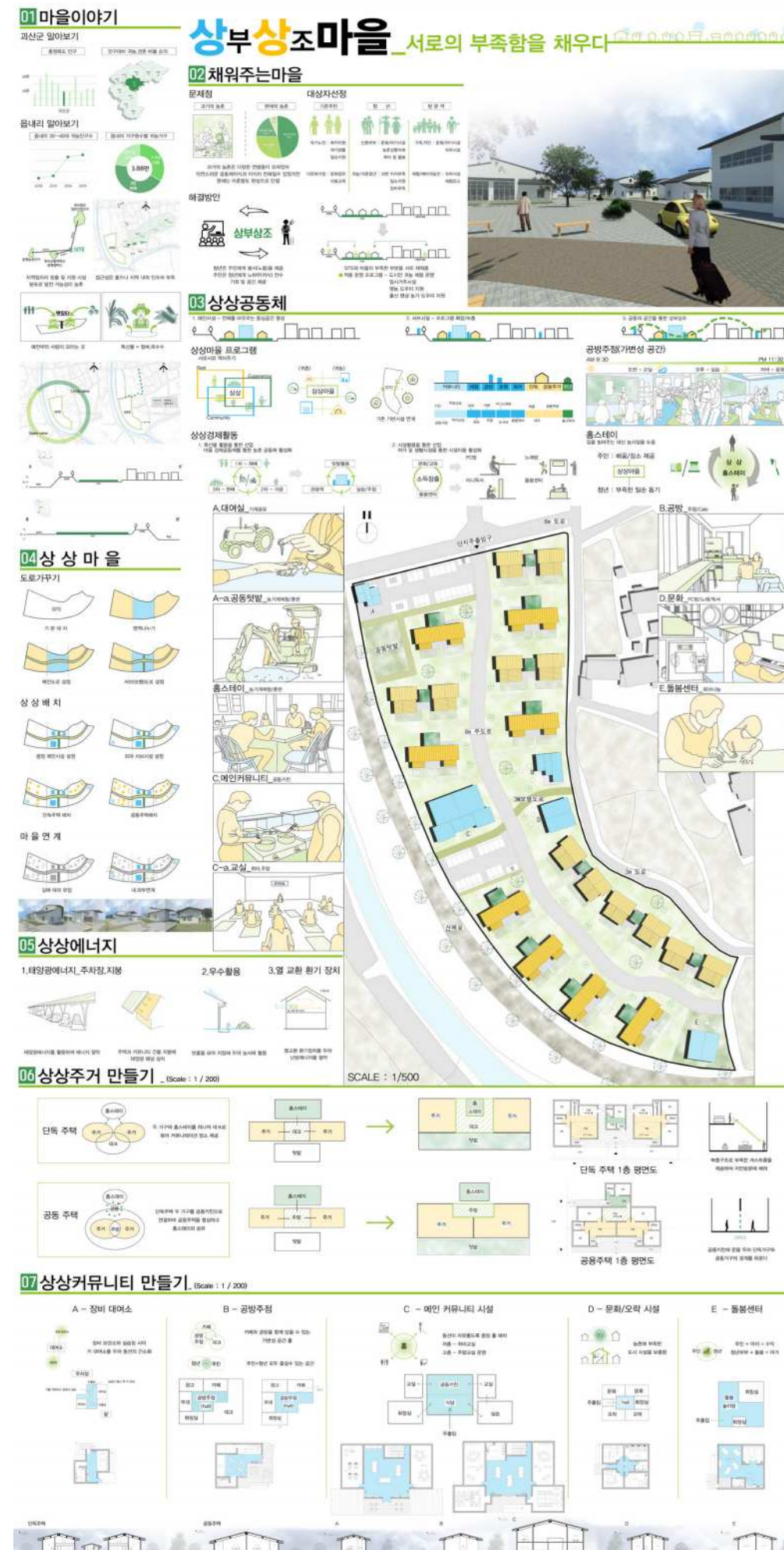
이재연 김희하 오다정
순천대학교



입선

상부상조마을

박지해 인천한 바주원
환경대학교



입선

시끌북적; 시골에 끌리다

박상현 고창진 김도현
선문대학교



입선

공존과 공유의 삶

박지수 노은영
명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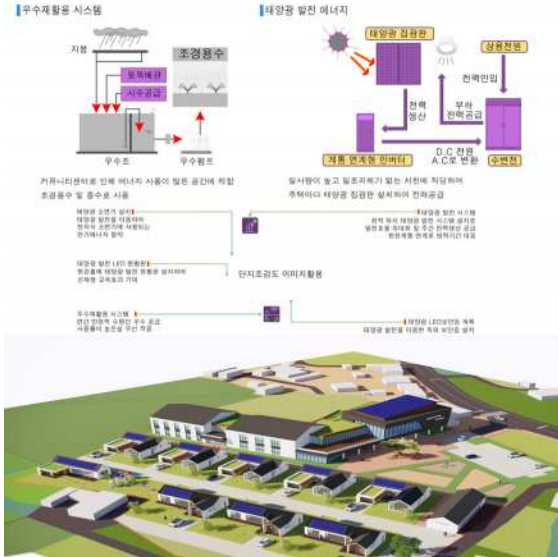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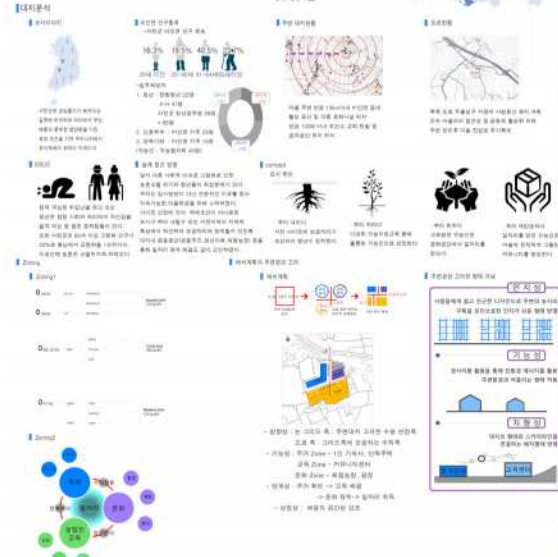
입선

취농취촌

최정호 강동민
전북대학교

취(取)농취(就)촌

- 청년을 모시고 Job Go



다이어그램

50 |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맛물림

정안면 현황

농업, 관광도 지역

- 농업 (농산물 생산량 100톤)
- 관광 (관광객 수 1000명)
- 주요 산업 (농업, 관광)

농업, 관광도 지역

- 농업 (농산물 생산량 100톤)
- 관광 (관광객 수 1000명)
- 주요 산업 (농업, 관광)

기후조건인 현황

기후조건인 현황

건설디자인그림

지역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투시도

맛물리

여러 세대가 맛물리다

지역연계 프로그램

주민들은 수확물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물리마켓에 가서 사고 한다. 이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면서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이다.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리마켓을 통해 주민들과 교환한다.

투시도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리마켓을 통해 주민들과 교환한다.

투시도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리마켓을 통해 주민들과 교환한다.

배치도 (Non Scale)

배치 계획

모의주거, 일대마을, 마을주거, 마을주거

커뮤니티시설 평면구성

평면 계획 (S: 1/100)

방 3개 주택, 청년 주택, 방 2개 주택

평면 계획 (S: 1/100)

방 3개 주택, 청년 주택, 방 2개 주택

배치도 (Non Scale)

모의주거, 일대마을, 마을주거, 마을주거

배치 계획

모의주거, 일대마을, 마을주거, 마을주거

커뮤니티시설 평면구성

모의주거, 일대마을, 마을주거, 마을주거

평면 계획 (S: 1/100)

모의주거, 일대마을, 마을주거, 마을주거

평면 계획 (S: 1/100)

모의주거, 일대마을, 마을주거, 마을주거

입선

벗(友), 꽃길만
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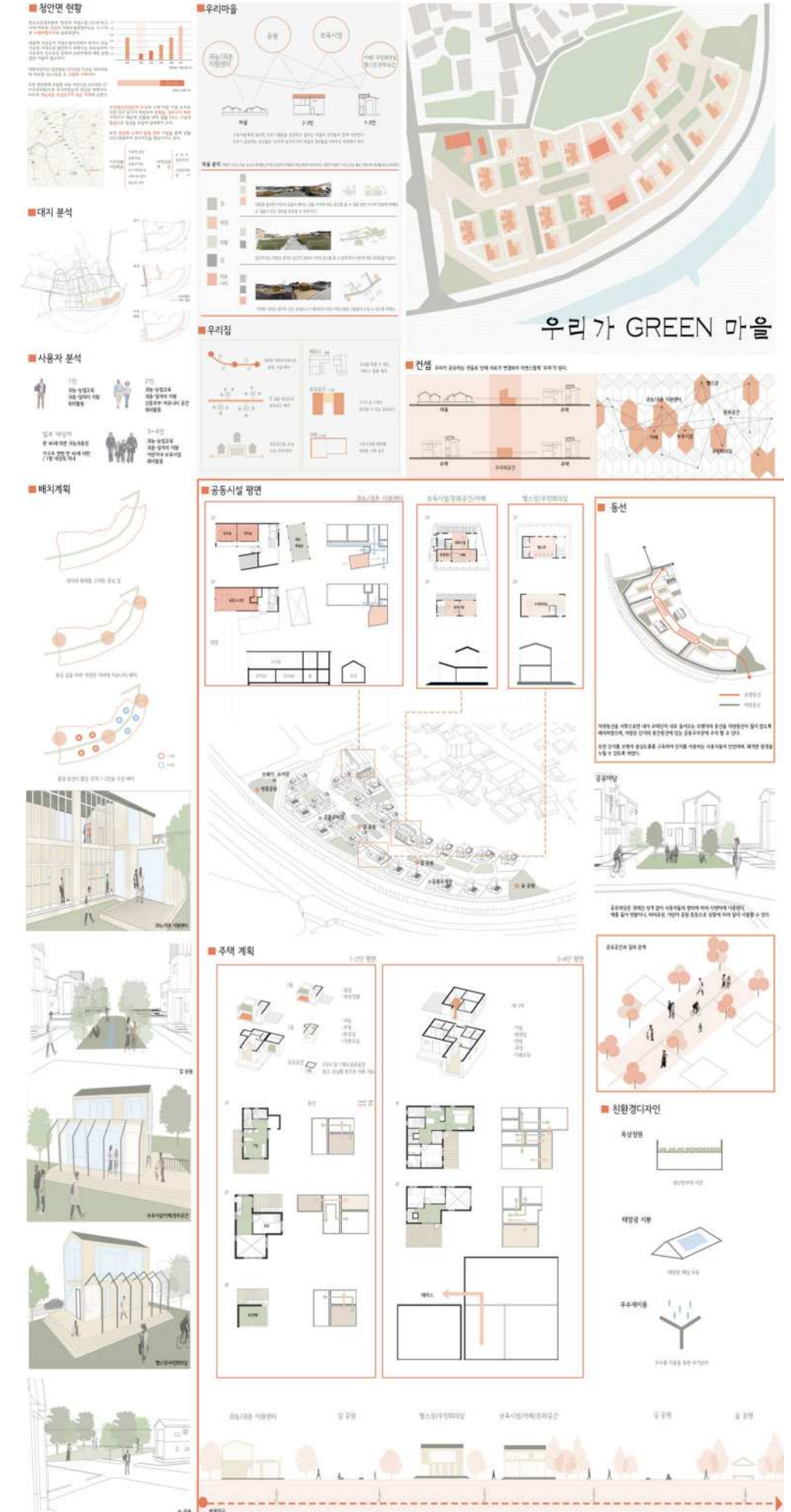
김은비 김혜진
선문대학교



입선

우리가 Green
마을

강다운 김한나
공주대학교



입선

Play: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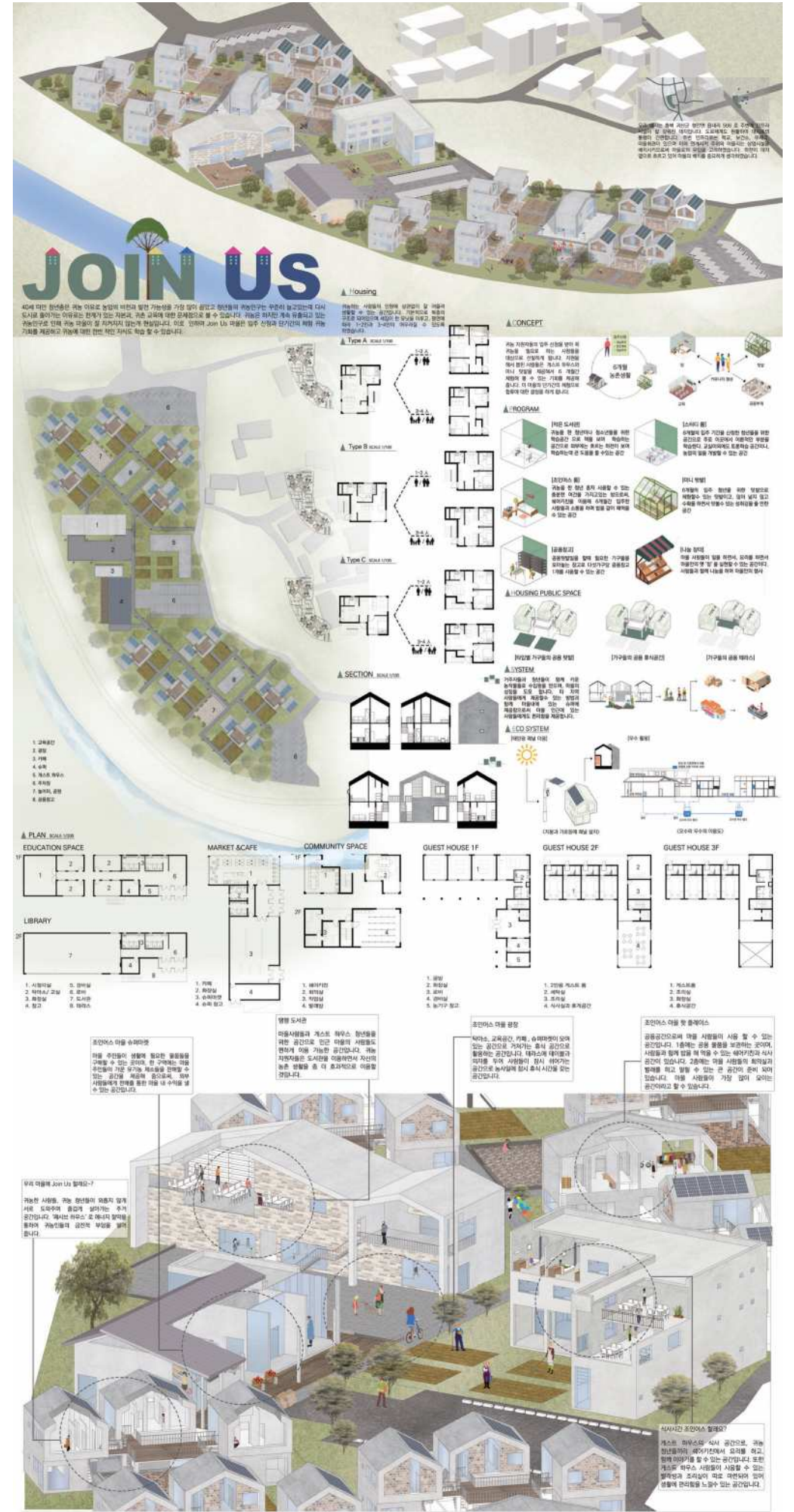
홍경석 박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입선

조인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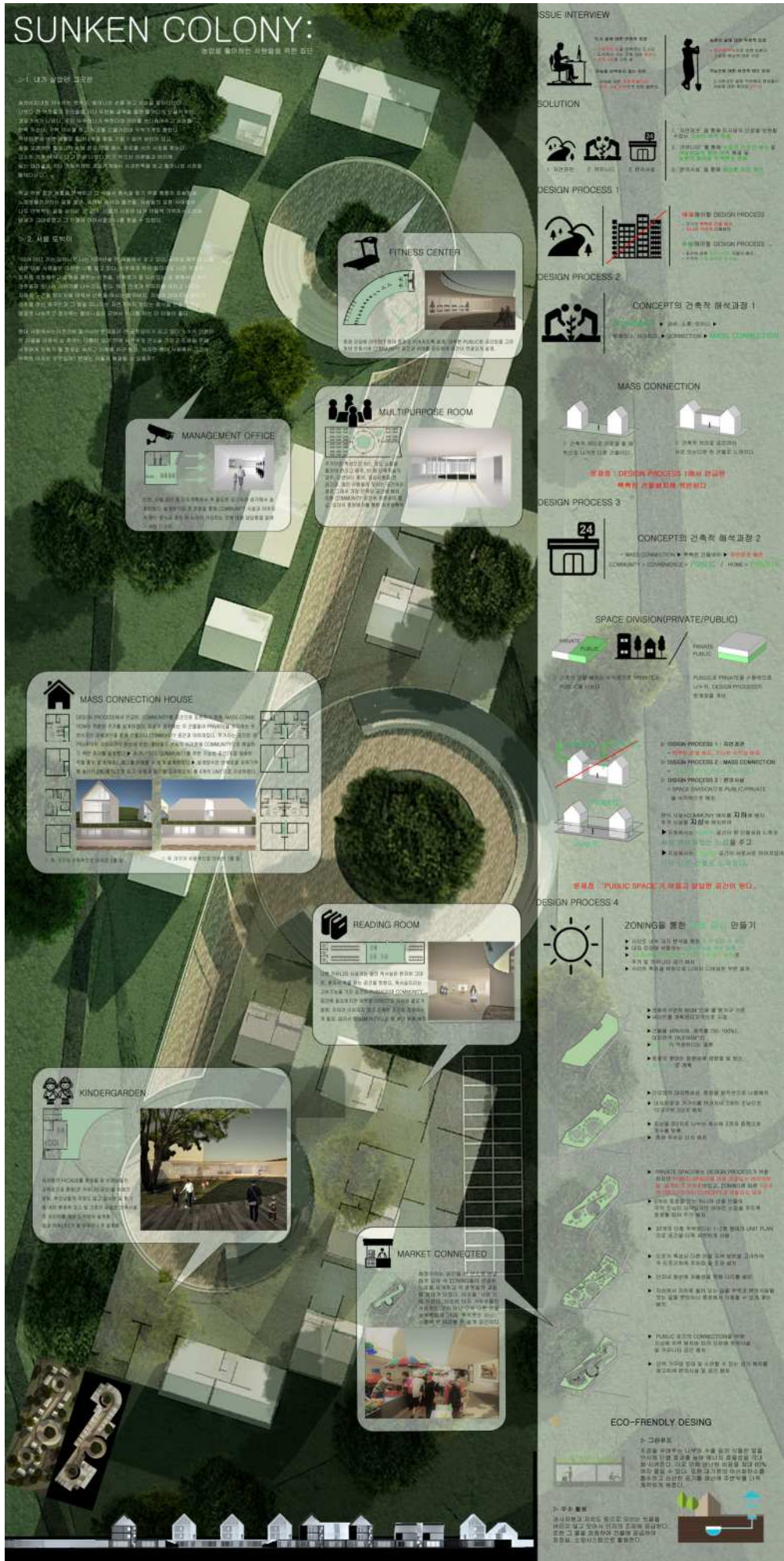
이종인 신소원
울산대학교



입선

Sunken col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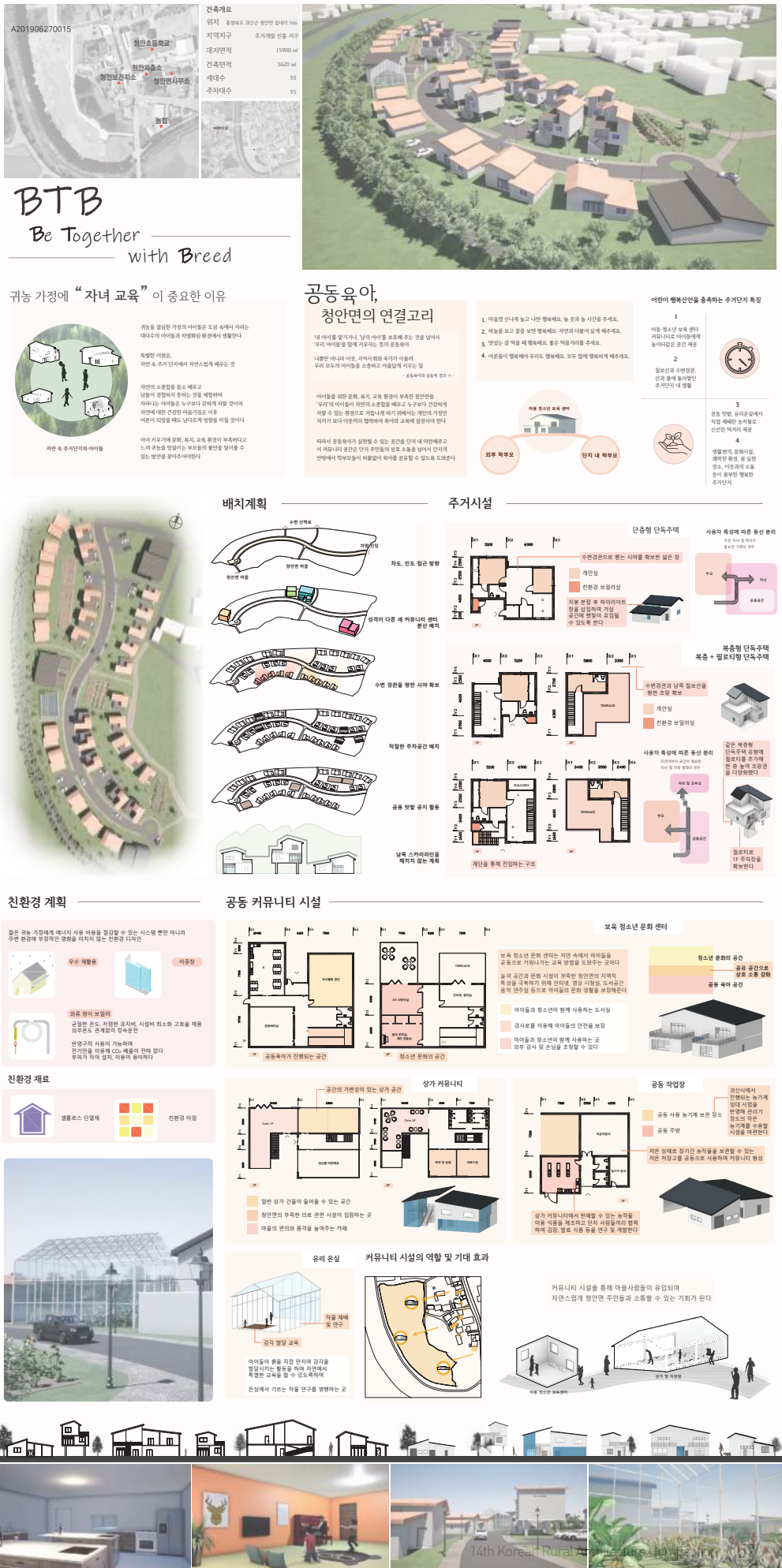
김도영 최지현
세종대학교



입선

BTB

김현우 박서원
건양대학교



입선

노소동락 한수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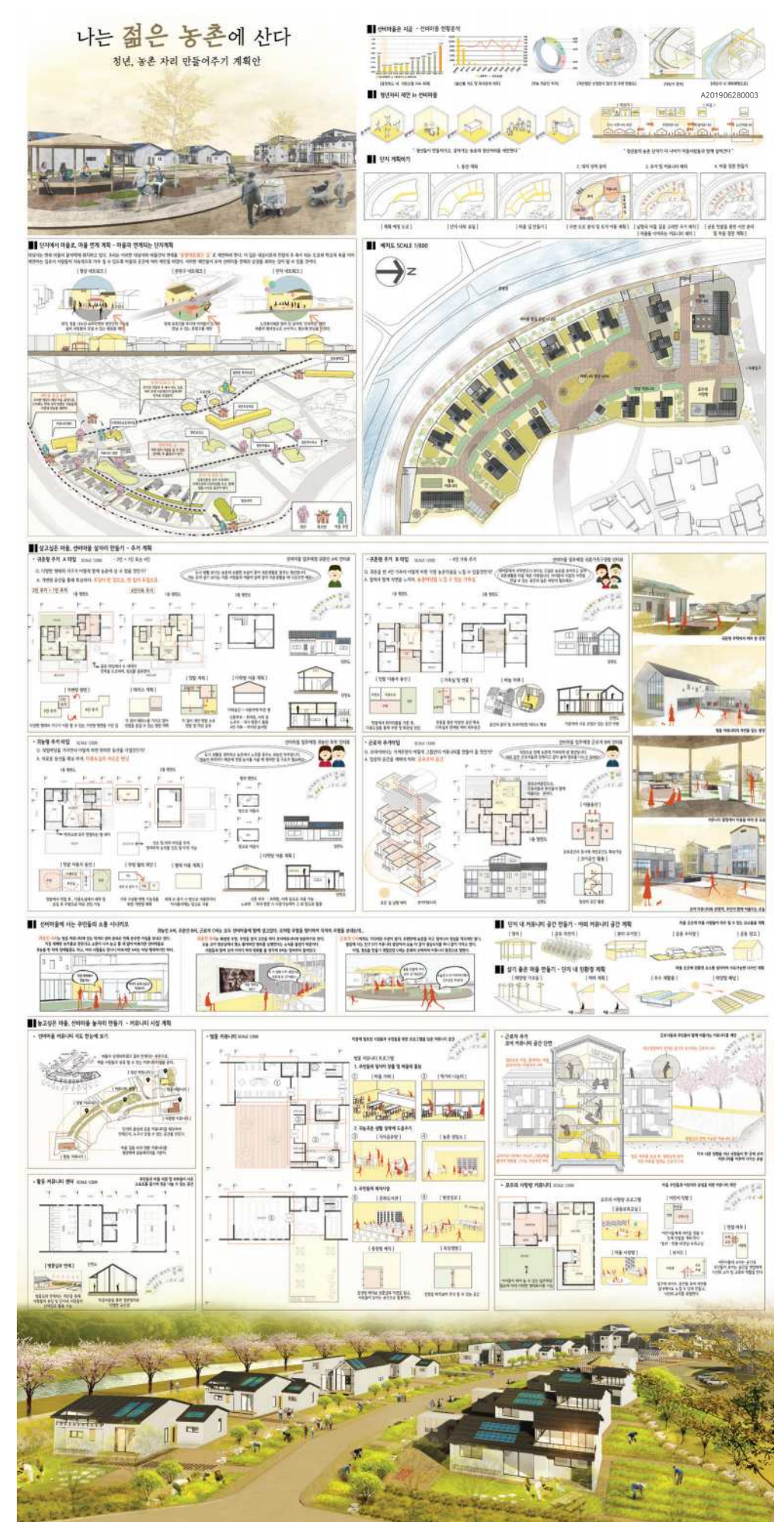
김현주 연승현
충남대학교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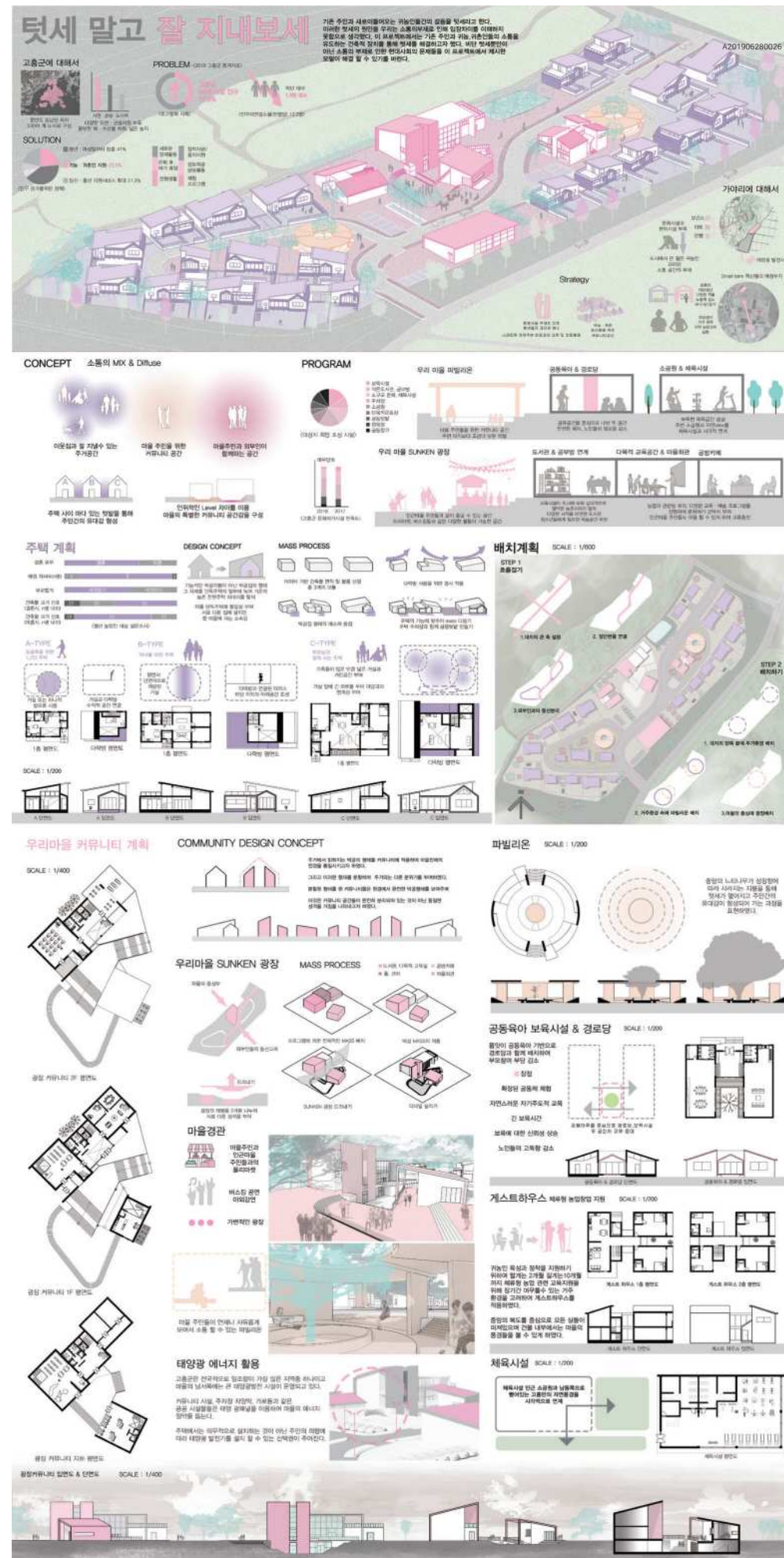
나는 젊은 농촌에 산다

김영일 허영지
영남대학교



'텃세'말고
'잘지내봅세'

최원재 전한얼 이일규
울산대학교



보.아.라

윤민상 성예지 이수민
한서대학교



입선

귀농청년들의 작은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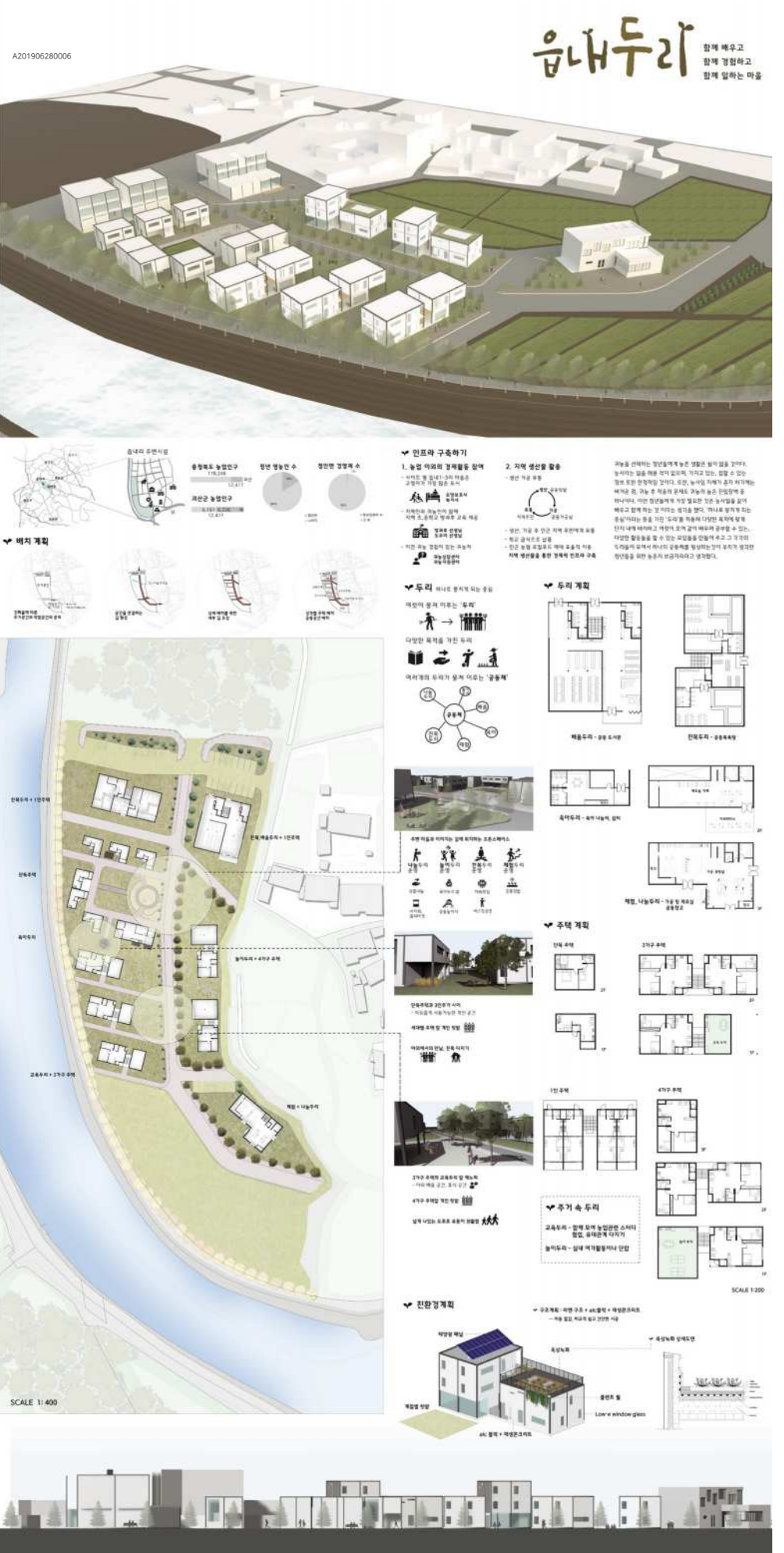
문은주 진예빈
영남대학교



입선

읍내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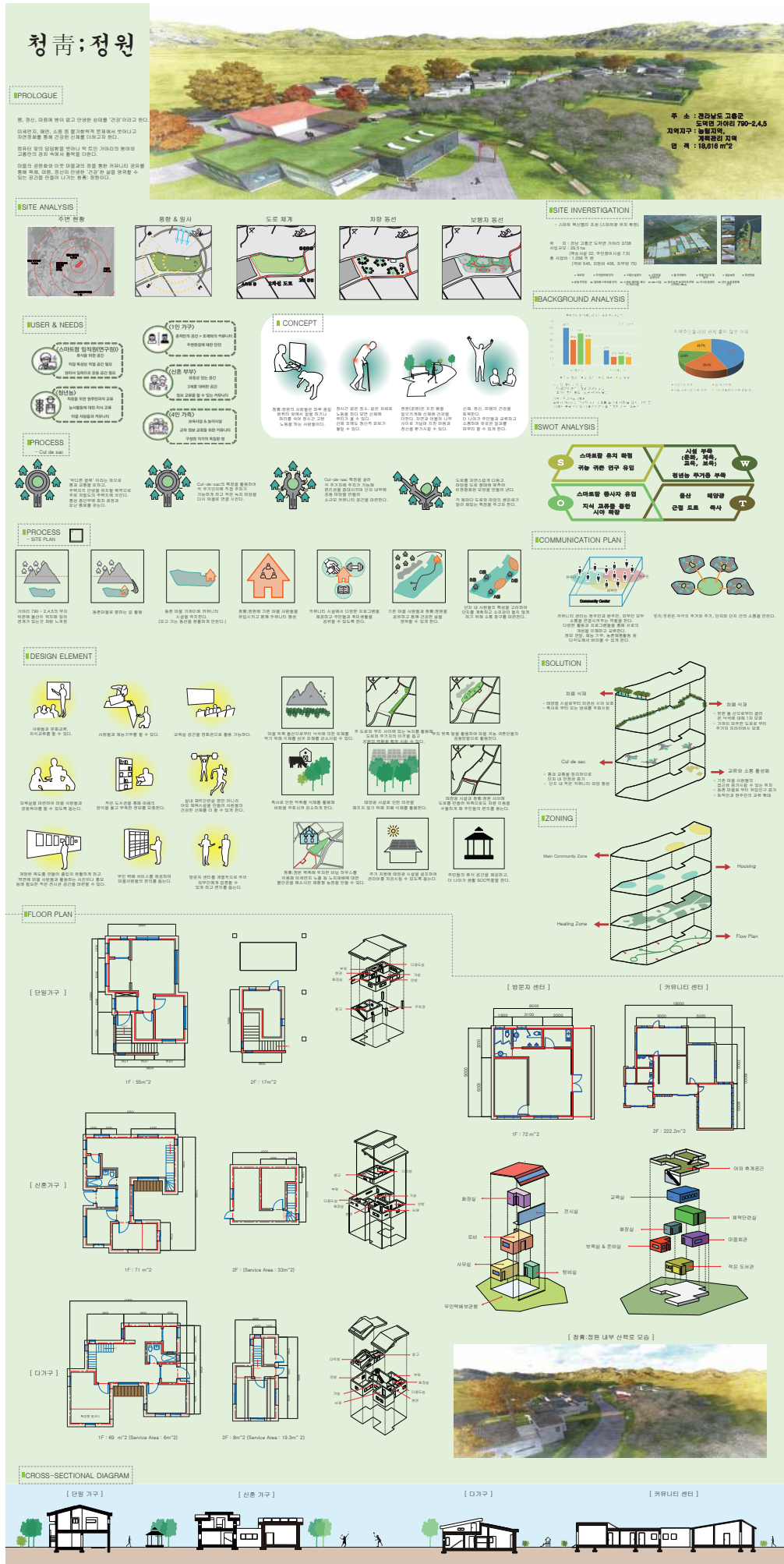
윤기연 김예준
서울시립대학교



입선

청靑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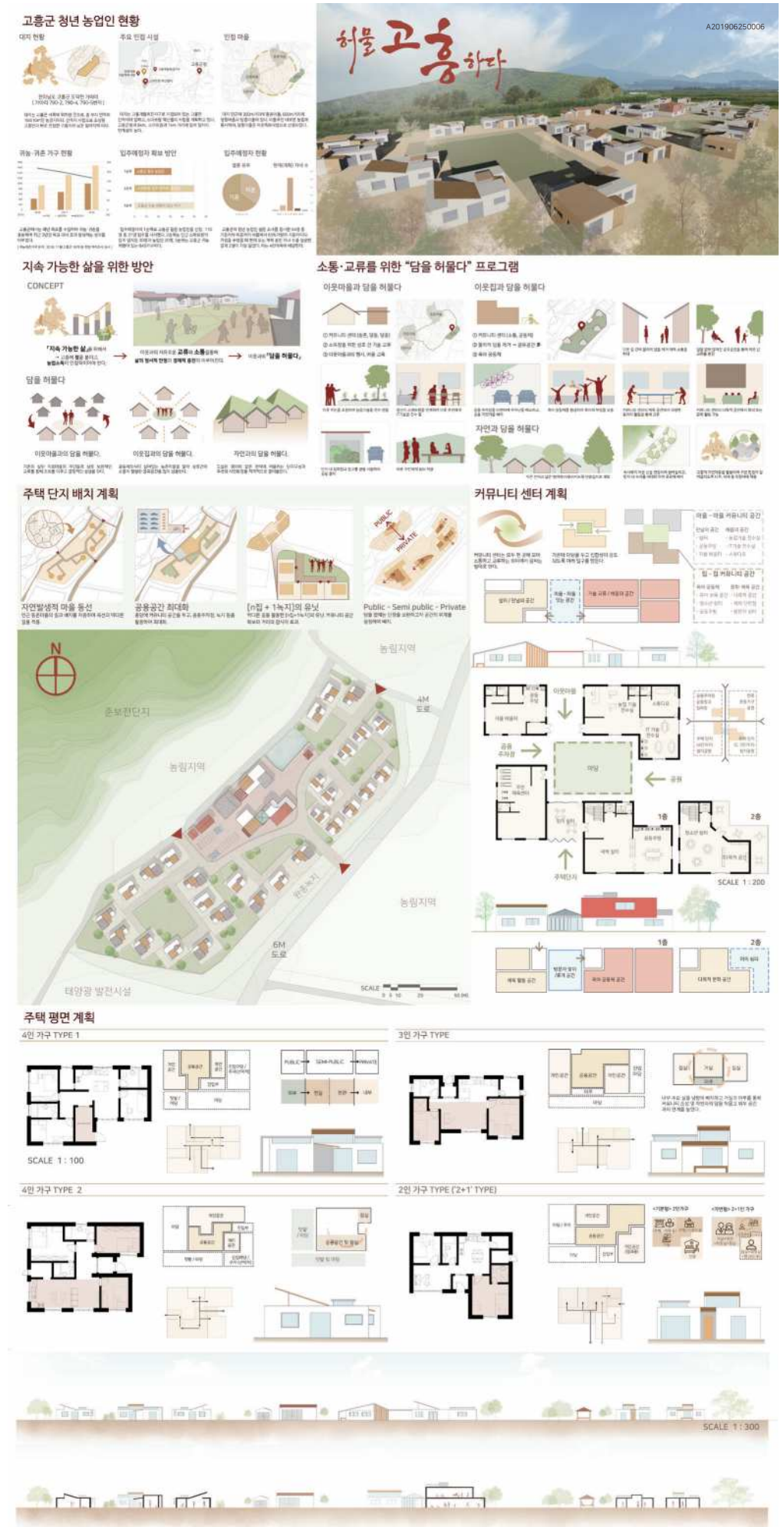
김도연 김민주 김용균
전북대학교



입선

허물고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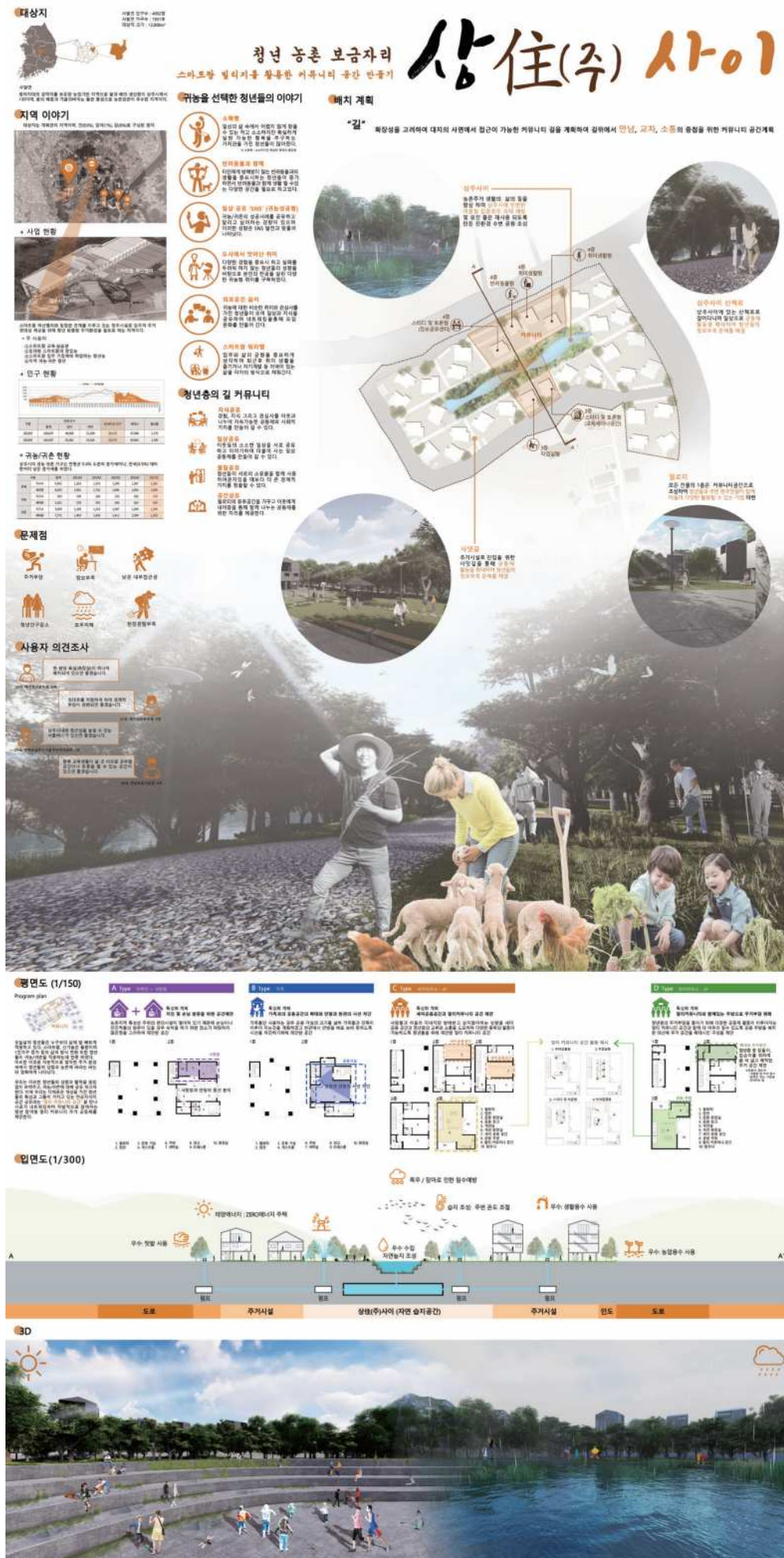
이선아 권오훈 이지원
공주대학교



입선

상주(住)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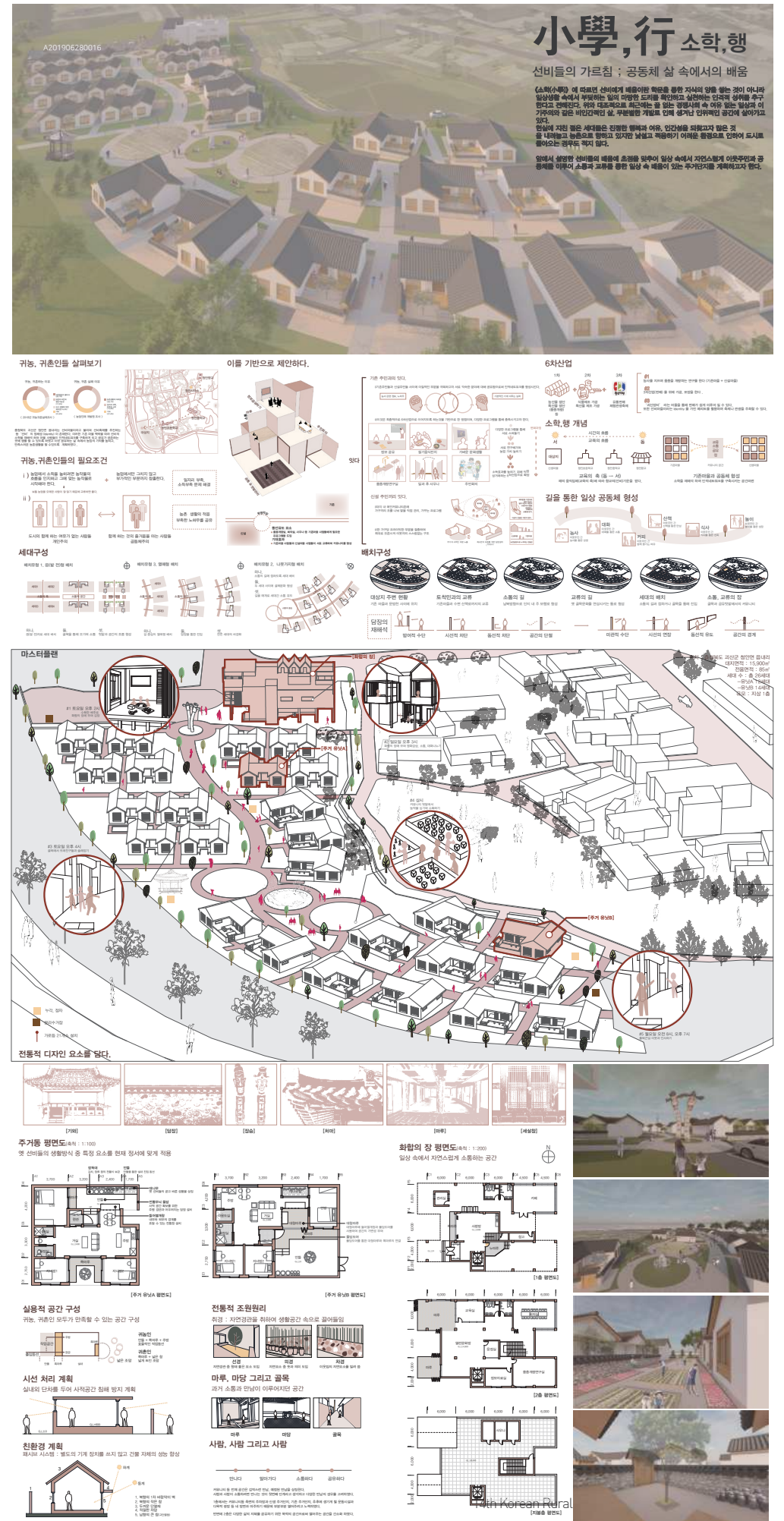
이남경 김정현 반준모
원광대학교



입선

소학, 행 (小學, 行)

문소연 김재진 김소현
선문대학교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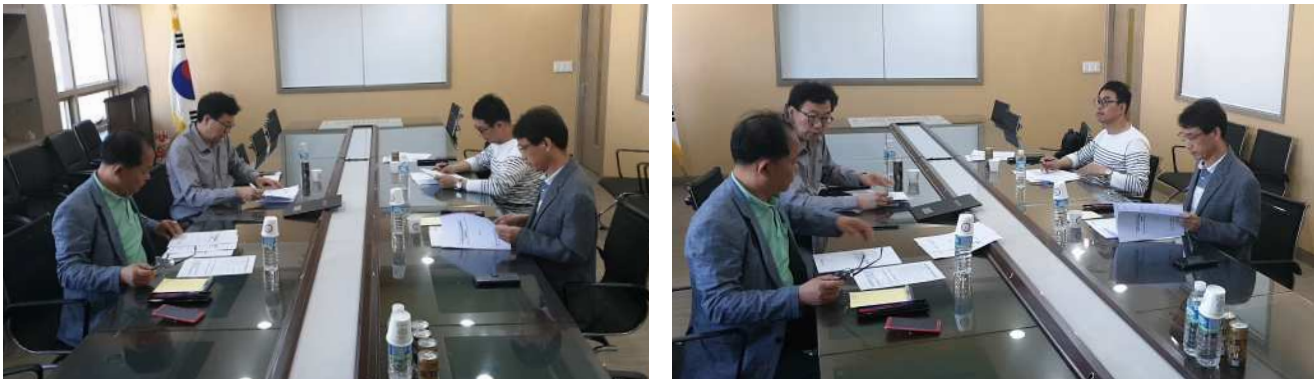
진행과정

운영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



심사

1차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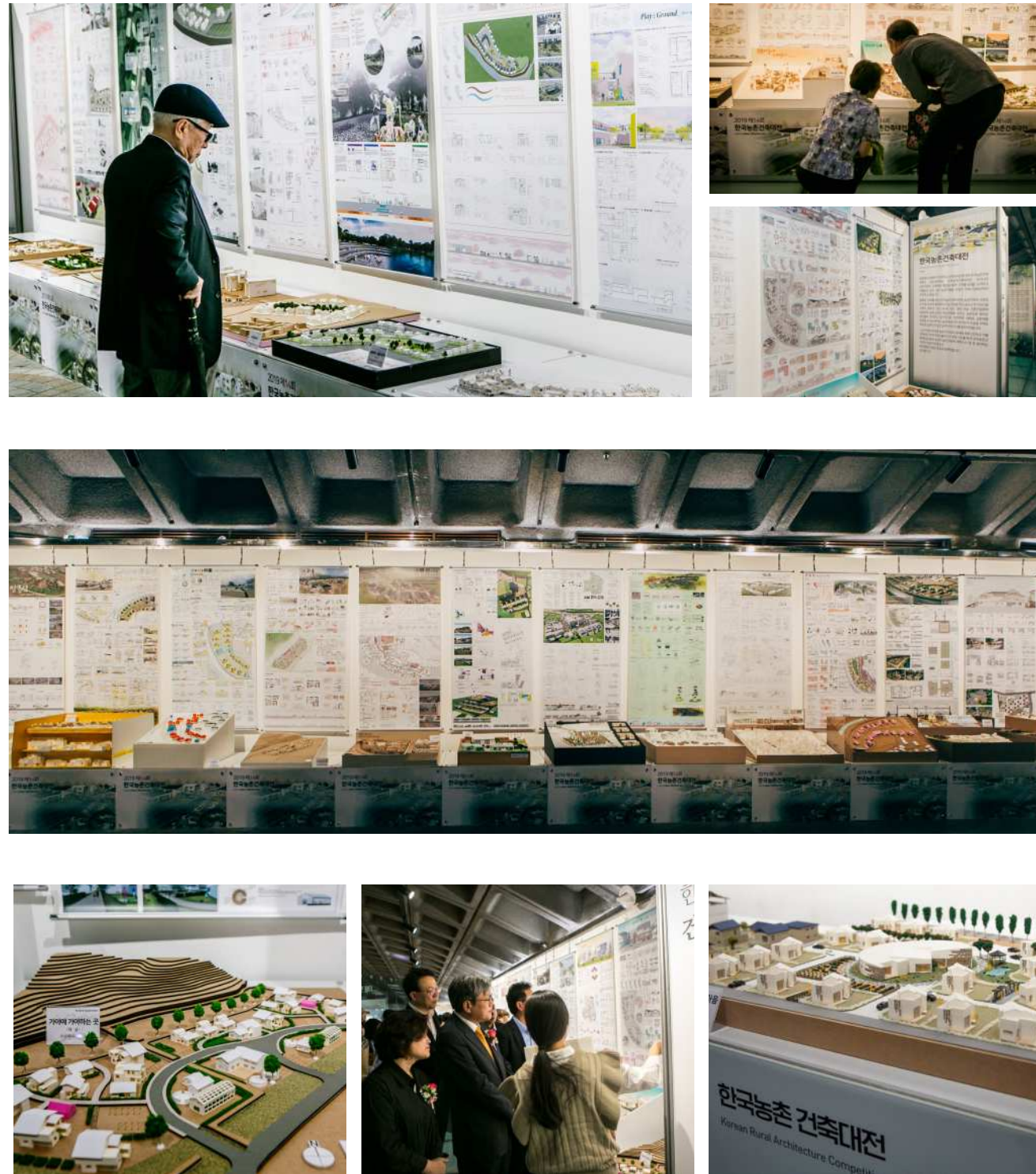
2차 심사



3차 심사



전시



시상



공모전 포스터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2019.06.03 월 ~ 06.28 금

공모내용
청년 농촌보급자리 주거단지 조성

공모자격
건축학, 건축공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

공모일정
신청기간 : 2019.06.03(월)~06.28(금)
작품접수 : 2019.07.08(월)~07.10(수)
3차심사 : 2019.08.29(목)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대 상 지
청년 농촌보급자리 시범사업 신청지구
괴산군, 서천군, 상주시, 고흥군
(대상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처 ☎ 오픈라톡 ruralarchi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사무국
Tel : 010-2110-7810 / 042-610-1935
E-mail : ruralarchi2019@naver.com
Address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30번길 43 3F
Homepage : www.raise.go.kr/ruralarchi

시상내역

구분	상장	상금
대상(1명/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만원
우수상(2명/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원
장려상(4명/팀)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원
입선(다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기념품

전시 리플렛

한국농촌계획대전

Korean Rural Planning Competition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우리 나라 농촌마을의 공동체 합성과 마을 발전 기제를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회를 맞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지향하며,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농촌이 함께 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발전, 변화, 혁신, 발전을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6.03(월)~06.28(금)
작품접수: 2019.07.08(월)~07.10(수)
3차심사: 2019.08.29(목)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농촌건축대전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우리 나라 농촌마을의 공동체 합성과 마을 발전 기제를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회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지향하며,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농촌이 함께 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발전, 변화, 혁신, 발전을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6.03(월)~06.28(금)
작품접수: 2019.07.08(월)~07.10(수)
3차심사: 2019.08.29(목)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농촌계획대전

Korean Rural Planning Competition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우리 나라 농촌마을의 공동체 합성과 마을 발전 기제를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회를 맞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지향하며,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농촌이 함께 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발전, 변화, 혁신, 발전을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6.03(월)~06.28(금)
작품접수: 2019.07.08(월)~07.10(수)
3차심사: 2019.08.29(목)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농촌건축대전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우리 나라 농촌마을의 공동체 합성과 마을 발전 기제를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회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지향하며,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농촌이 함께 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발전, 변화, 혁신, 발전을 위한 연구모형을 완성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6.03(월)~06.28(금)
작품접수: 2019.07.08(월)~07.10(수)
3차심사: 2019.08.29(목)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4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초판 1쇄 인쇄 2019년 11월
초판 1쇄 발행 2019년 11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편집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전화 044) 201-1558~9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999-14
ISBN 979-11-86183-29-8

이 책의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39259)

*비매품

